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7284.41	코스닥	829.43
(+427.58)		(+45.45)	
금리 (국고채 3년)	3.866	환율 (원·달러)	1492.15
(-0.021)		(-0.85)	

신동빈 롯데 회장
“AX는 생존 과제
CEO부터 움직여라”
02



李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 마련하라”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올해 보다 380원 오른다

대통령, 정부부처 업무보고
국민 200명 참석 국민참여 진행
“부동산 자산 비중 너무 크지 않나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요과제”
자본시장 MSCI편입 상황 등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위한 탕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매회 20여명씩 일반 국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비정상화’를 다시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다 부동산에 매달려 있다”며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제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추진 상황과 이달부터 시작된 주가 1000원 아래의 ‘동전주’ 퇴출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우리 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같은 게 국제적으로 수요를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질문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내년 초면 대비책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6면에 계속〉

/사제인 기자 sy@metrosoul.co.kr



청년층 취업자 수 44개월 연속 줄어

국가데이터처, 6월 고용동향
총 취업자 수 2915만명 증가 전환

취업자 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으나 청년층에선 4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도 각각 2년째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만3000명(0.2%) 늘었다.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받은 5월에 4만 명 줄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한 것. 하지만 증가 폭은 1월(10만8000명), 2월(23만4000명), 3월(20만6000명) 등 1분기와 비교해 크게 둔화했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운수업및창고업(4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9만7000명), 농림어업(-9만5000명), 건설업(-6만7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은 2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 영향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유가 파해지원금이 본격 집행되면서 예술스포츠, 숙박음식업 등에서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전국 매매·전월세 상승세 서울 월세 평균 128만원

부동산원, 6월 전국 주택종합지수
매매 0.33%, 전·월세 0.38%씩 ↑
서울 월세 상승률 역대최고 기록

전국의 매매·전세·월세가 지난달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월세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 평균은 128만원, 전세 평균은 4억8479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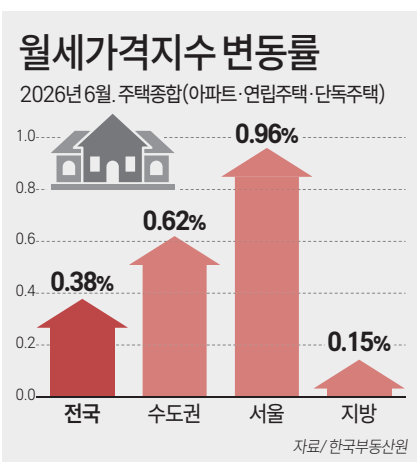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33%, 전세가격지수는 0.38%, 월세가격지수는 0.38%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과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 또는 구축 단지에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 나타났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과 대단지·역세권 등에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1.03% 올라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이어졌다. 상승폭으로 보면 작년 10월(1.19%) 이후 가장 높다.

성북구와 광진구가 각각 1.39%, 1.31% 상승했고, 강남구(1.04%)와 송파구(1.1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은 1.08% 상승했다. 지



난 2011년 9월(1.56%) 이후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지난 3월 이후 6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상승률이 2.0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평균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6% 올랐다. 지난 2015년 7월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몰린 월세 수요가 월셋값을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성동구가 1.77%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 1.55% ▲송파구 1.48% ▲성북구 1.46% ▲강동구 1.24% ▲도봉구 1.19% ▲강북구 1.15% ▲마포구 1.13% 등도 상승폭이 컸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4158만원, 서울은 10억1268만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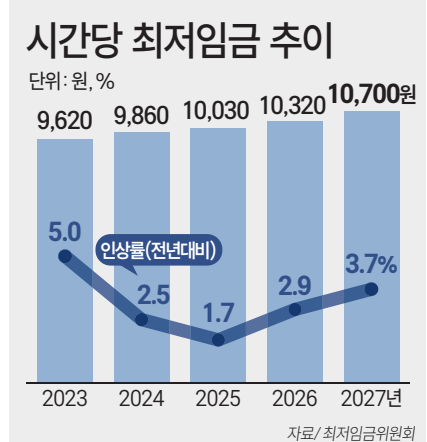
정화와 속개를 반복하며 차이를 좁혀간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합의추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4.0% 인상한 1만730원을, 경영계는 3.7% 인상한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단 30원까지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 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노동계 안을 누르고 최종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7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일할 경우, 월급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는 올해(215만6880원)보다 매달 7만942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최대 297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의결한 적 없다”
▲與 “MBK·메리츠에 국민 분노”…27일 정무위서 홈플러스 청문회 /사진 뉴시스

▲한미, 역대 최대 군수지원 훈련…美합정서 하역해 최전방 지원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

▲피해 여고생 모른다던 장윤기, 휴대전화서 인지정황 발견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

신동빈 “AX는 성장 아닌 생존 과제… CEO 먼저 움직여야”

〈롯데 회장〉

〈인공지능 전환〉

하반기 롯데 VCM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논의
10여개 AI 에이전트 선보여
식품·유통 등 사업 본질 집중

롯데는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하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하반기 VCM에서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 방침을 공유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했다.

이날 VCM은 미래학자 겸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Doug Stephens)의 외부 강연으로 시작했다. VCM에 외국 연사를 초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그 스티븐스는 글로벌 우수 기업의 전략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 경영진에게 AI 트렌드 변화 및 글로벌 시장에 관



김대일(왼쪽부터) 세브일레브 대표, 서정호 롯데웰푸드 대표, 이승민 롯데알미늄 대표,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정기호 롯데상사 대표가 16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롯데 VCM(옛 사장단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

한 인사이트를 소개했다.

이어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고정욱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각각 그룹 하반기 경영 전략과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부문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각 사업의 본질에 집중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는 VCM에 앞서 그룹 AX 추진 현황과 사례를 소개하는 ‘AI 에이전트 전시’도 진행했다. 전시에서는 음성과 모션 인식 기반의 AI 비서와 더불어 가격 모니터링, 수요예측, 글로벌 시장전망 분석 등 현업 적용 목적으로 개발한 10여개 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롯데그룹은 AI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전사적인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의사결정, 고객 경험, 사업 운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신동빈 회장은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CEO AI 교육’에서 “AX는 기업의 성장이 아닌 생존이 걸린 중요한 과제”라며 “그룹이 AX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CEO가 최전선에 나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롯데 VCM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및 실장, 각 계열사 대표 등 80여 명이 모여 그룹의 경영 방침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상반기 VCM에서는 사업별 선결과제로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식품) ▲상권 맞춤형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유통)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스펙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화학)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김범석 쿠광Inc 의장 대기업 총수 지정 효력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광Inc 이사회 의장(사진)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광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효력을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대기업 총수로서 처야 하는 친인척 주식 보유 현황 보고 등 각종 공시 의무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둘 경우 신청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갈등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든 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첫 타깃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광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쿠광의 동일인을 기존 법원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바꿨다. 하지만 쿠광 측은 해당 친족이 물류 부문 전문가로서 일할 뿐 경영 핵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미국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처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이번 사건은 1980년대 동일인 제도가 생긴 이래 기업이 정부의 지정 처분에 정면으로 불복해 법정 싸움을 벌이는 첫 사례다.

공정위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판결의 결과와는 무관한 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1면 ‘청년층 취업자 수…’서 계속

임금근로자 8만명 감소

연령별로 보면 20대(-19만9000명)와 40대(-1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60대 이상(21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000명)에서는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감소해 44개월 연속으로 후퇴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224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1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1만6000명)가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5만1000명)와 일용근로자(-4만5000명)는 줄었다.

6월 고용률은 63.4%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1%p 내려왔다.

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6월 실업자 수는 8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명(1.2%)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화그룹, 사업구조 재편 본격화… 3세 경영구도 ‘선명’

㈜한화 인적분할 안건 주총 통과
오너 3형제, 사업 영역 명확해져

㈜한화의 인적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한화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방산·조선·에너지 등 전략사업과 기계·유통·로보틱스 사업을 분리해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선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구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15일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열린 제75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만 상정됐다. 김우석(㈜한화 대표)의 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개회부터 의결까지 약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분할은 상법상 단순·인적분할 방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한화는 존속하고 일부 사업과 자회사 지분을 떼어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나리언서비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한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0.7563533, 신설법인 0.2436467로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약 76대 24다.

존속법인에는 방산과 조선·해양, 우주, 에너지, 금융 관련 사업이 남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도 존속법인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설법인에는 시큐리티와 반도체 장비 등 산업기계 사업을 비롯해 유통, 호텔·레저, 로보틱스 등 테크·라이프 사업이 편입된다. 신설법인은 관련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를 담당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업 재편으로 한화그룹 오너 3형제의 사업 영역도 한층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다. 장남 김동관 부회

장은 방산·조선·에너지 등 그룹의 핵심 성장사업을 총괄하고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부문을 맡는다.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신설법인을 중심으로 유통·서비스와 로봇·반도체 장비 등 테크·라이프 사업을 이끌게 된다.

사업 영역이 분리되는 만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도 각자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신설법인은 2030년까지 설비투자 2조1000억원, 연구개발(R&D) 2조원, 인수합병(M&A) 6000억원 등 총 4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평균 30%의 매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존속법인도 방산·조선·에너지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 경쟁력을 높여 같은 기간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성장률을 목표로 한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ASML, 2분기 깜짝실적… 내년 EUV 장비 생산능력 30% 확대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 투자 주효

반도체 노광장비 독점 기업 ASML이 시장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극자외선(EUV) 장비 생산능력을 내년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고 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D램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사이클이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15일 ASML에 따르면 회사는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약 15조9000억원), 순이익 29억1800만유로(약 5조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84억~90억유

로)를 상회했다. 신규 노광장비 판매는 86대로 전 분기(67대)보다 19대 늘었고 서비스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호실적에 힘입어 ASML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기존 360억~400억유로에서 430억~450억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석 달 만의 재상향으로, 전망치 하단만 달성해도 지난해 매출(327억유로)보다 30% 이상 성장하게 된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110억~120억유로(약 19조~20조원)로 제시하며 2분기 실적을 약 20% 웃도는 성장을 예고했다.

여기에 올해 약 65대인 EUV 장비 생산능력을 내년 30% 확대하고 2028년 추가 증설도 검토하는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심자외선(DUV) 이머전 장비 역시 올

해 약 130대에서 내년 30% 증설한다.

ASML은 올해부터 분기 주주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증설 계획은 고객사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평가된다. 장비 인도와 매출 인식이 실제 주문보다 1년 이상 늦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에는 2027~2028년 투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수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ASML의 1분기 IR 자료 기준 시스템 매출에서 한국 비중은 45%로 단일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용도별로는 메모리(51%)가 로직(49%)을 앞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양산과 첨단D램 전환을 위해 EUV 도입을 확대한 영향이다. EUV 공급 부족이

메모리 증설의 병목으로 지목돼온 만큼 생산능력 확대는 국내 업체들의 첨단 메모리 투자 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장비 투자 확대 흐름은 시장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 한국의 300mm 랩 장비 투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약 296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전체 투자 규모도 올해 1330억달러에서 내년 사상 처음 1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는 “AI 관련 투자가 첨단 로직과 메모리 칩 수요를 견인하면서 고객사들이 생산능력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며 “상반기 주주 유입은 극도로 강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



metro

주택대출 규제 놓고 팽팽… “부실 방지” vs “실수요 지원”

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
청년 대출 규제 완화 여부 쟁점
고가·과다대출 부담금 도입 제한
실수요자 기준 재정립 필요성 제기

주택금융으로의 대출 풀림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다. 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누군가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다”라며 “토론회는 어느 주장의 옳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오는지 이해하고,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할 해결책을 찾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및 금융업계·건설업계 관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했다.

모두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 토론회에 앞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확대 ▲정책모기지 확대 시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전세대출 관리 방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 최근 주택금융 시장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어 비탄력적인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구매의 기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 비용보다 크다면 주택 수요는 무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탄력적인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려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주택시장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고가주택담보대출이나 과다대출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도입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가장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분야는 '실수요자 지원 확대'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로 의견이 갈렸다. 특히 청년층을 두고 현행 규제 하에서는 청년 간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 시 청년들을 과도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했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대출 풀림을 해소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이다”라며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곳이 2030세대 가구인데, 기준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청년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실수요자'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현행 제도에서는 실수요자와 투가수요자를 분류할 때 주택 보유 여부만 따지고 있다. 과거 2020년 부동산 규제 당시에는 청년과 무주택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청년층의 '갭투자' 수요를 급증시킨 바 있다”라며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2030세대의 자금조달 계획 70%가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으로 이뤄지는 현 국면에서, 차별화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또다른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수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는 한편, 가격 및 거래 외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의료서비스, 양질의 교육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모든 수요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제는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다”고 분석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국민성장펀드 200조+a로 확대… 우주항공 추가 지원

금융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발표
초격차 기술에 5년간 최대 10조
신용평가 미래 성장성 중심 개편
장기연체 정리·재기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a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을 추가한다. 신용평가 체계는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200조원으로 확대

생산적금융을 위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민간 75조원 재정 75조원)에서 200조원+a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산업도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이차전지, 컨테츠,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방산, 수소, 백신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우주 항공을 더한다.

고위험·초격차 기술 투자를 전담할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화수기간이 길어 민간 자본이 꺼리는 첨단기술 분야에 10억원 이상 초장기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

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양자수퍼컴퓨팅과 바이오 디지털트윈 등 미래 선도 원천기술과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자석 및 정련 기술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이다.

지역 우대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5극(수도권, 충청권(중부권), 광주·전남권(호남권), 부산·울산·경남(동남권), 대구·경북권) 3특(강원, 전북, 제주)과 연계한 공급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까지 늘린다. 1조원을 들여 지역 전략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스타트업 빌드업 대출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한다. 코스닥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결제주기는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저주가순 자산비율(PBR) 기업 공표와 배당 확대를 유도,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주

주 가치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 포용금융… 재기 사다리 넓힌다

포용금융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과거이력으로 평가하던 신용평가는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하고, 소액저리 장기대출 등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연체 양산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채권 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해 장기 연체의 악순환을 끊을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고 대손상각도 미리 해놓는 다”며 “선진국에서는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서민의 자산 형성과

금융 접근성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초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창업 전용 정책금융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1대1 맞춤형 재무상담과 군 장병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과 청년미레이금대출, 햇살론 유스 지원을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권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과 금융 간 연결고리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고도화하는 한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금융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서유리 기자 yul115@



metro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법 개정이 첫 관문

거래소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가상자산 기초자산 인정 입법 필요
김치프리미엄 해소·선물시장 구축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기초자산 인정과 김치프리미엄 해소, 선물시장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의원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연구원은 미

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홍콩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뒤 올해 4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본원은 가장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김치프리미엄'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외 가격 격차가 크면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원은 ETF 운용사가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로 들여오는 차익거래가 가능하지만 김치프리미엄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물 ET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 조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AP가 현물 ETF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대규모 현물을 거래할 경우 가격 급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선물시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경기회복 진단 상향·민생부담 지속”

재경부, 최근 경제동향 발표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고용 둔화에 따른 민생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호에서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 설비 개선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달에

는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낙관론을 한층 가미한 문구를 썼다. 반면 민생 부분에서는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발 소비재물가 상승, 일자리 증가 폭 둔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5억 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9.5% 증가했다. 수입은 661억 달러로 30.1% 늘었고 무역수지는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서동원 기자 yd115@



metro

전력기기 강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직류·ESS 확장

LS일렉트릭

LS ELECTRIC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등 기존 전력기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직류(DC) 전력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북미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구간부터 내부 배전설비, 자체 발전설비까지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규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5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주잔고와 국내외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도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기기 호조에 1분기 최대 실적… 수주잔고 5조6000억원

LS일렉트릭은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부터 중·저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까지 전력 공급 과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사업이 전체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4%, 45%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전력사업 매출은 9584억원으로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05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배전반 매출은 3563억원으로 79%, 초고압 변압기는 1642억원으로 83% 늘었

북미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에 1분기 매출 1.3조, 영업이익 1266억 전력사업·배전반 등 매출 급등

2분기 신규수주 최대 2조 전망 올해 수주목표 4.8조… 상향 가능성 전력망 접속부터 패키지 수주 가능

부산사업장 증설로 생산능력 키워 美 유타주 배전반 생산거점 증설

차세대 사업으로 직류전력·ESS 천안사업장서 직류배전 기반 생산시설 구축해 기술 실증 나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미국 유타주 소재 'LS일렉트릭 유타'에서 현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UL인증 배전반.

다. 북미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고수익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 기반도 확대됐다. 올해 1분기 말 수주잔고는 5조642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초고압 변압기 수주잔고가 3조1024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배전반은 1조1697억원, 초고압 GIS는 3585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반기 신규 수주 최대 3조원…연간 목표 상향 가능성

증권가에서는 LS일렉트릭이 2분기에 도 데이터센터와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매출을 1조4764억원, 영업이익을 1596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47% 증가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0.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신규 수주 증가다. LS일렉트릭이 제시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8800억원이다. 1분기 신규 수주는 1조9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26.7%를 달

성했다.

4월 이후 공개된 수주만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중부 데이터센터용 345킬로볼트(kV)급 초고압 변압기 1066억원,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1700억원, 블룸에너지 대상 전력설비 3190억원, 데이터센터용 진공차단기(VCB) 등 1050억원, 38kV급 마이크로그리드 배전반 공급 계약이 잇달아 반영됐다.

2분기 신규 수주는 1조5000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신규 수주 목표도 기존 4조8800억원에서 5조~6조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헌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접속 구간과 내부 전력 인프라, 온사이트 발전용 전력 패키지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어 가장 빠르게 수주 가이드라인 상향이 확인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 초고압보다 배전반이 수주 증가 견인…AI 인프라 수주 1조5000억원 전망

신규 수주 증가분은 초고압 변압기보다 배전반과 데이터센터 내부 전력 인프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고압 변압기 수주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2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데이터센터 내부 전기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체 발전설비에 공급되는 배전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에는 외부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초고압 설비와 함께 내부 전기실에서 서버와 냉각설비 등 각 시설로 전력을 분배하는 중전압 배전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전력망 접속 지연에 대응해 연료전지와 가스터빈 등 현장 발전설비를 활용하려는 수요도 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배전기기, 전력제어 설비를 함께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접속 구간부터 내부 배전망과 현장 발전설비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수주가 가능하다.

손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가 지난해 약 1조원에서 올해 약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압 변압기 중심에서 배전반과 전력제어 설비까지 공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프로젝트당 수주 규모도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 생산능력 확대하고 직류·ESS로 사업 확장

늘어난 수주를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도 진행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부산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에서는 유타주 배전반 생산거점 증설을 추진하고 텍사스주에도 생산과 사후 서비스를 담당할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초고압 설비와 미국 현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해 납기를 줄이고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차세대 사업으로는 직류 전력과 ESS를 육성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와 배터리, 태양광발전 설비가 직류로 작동하는 만큼 교류와 직류의 변환 단계를 줄이면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중·저압 직류배전,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ESS용 전력 변환장치(PCS) 등 관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천안사업장에는 직류배전 기반 생산 시설을 구축해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AI 데이터센터용 직류 전력 솔루션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수주 증가를 실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증설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납기를 관리해야 한다. 전기동과 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관세 정책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류 전력 사업 역시 기술 실증을 실제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수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전력망이 교류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직류 설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검증,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시장 확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배전반과 전력제어 시스템까지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신규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주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LS파워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7026만 달러(한화 약 1066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S파워솔루션 울산 사업장에서 관계자가 초고압 변압기를 소개하는 모습. /LS일렉트릭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가 생각하는 「포용」은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아낌없이 부어주던
시원한 등목 물줄기처럼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
곁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아낌없이 손을 내미는 것 아닐까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처럼
다시 일어설 국민에게
다시 품는 희망이,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국민에게 건네던 그 마음 그대로
KB가 포용금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2026년 연간 6.9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중부일보]

2026년 포용금융
3조 원 지원

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의 성장과
자산 형성,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추진

2026년 민간증금리대출
3.5조 원 지원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끊임 없는 금리사다리 지원

2026년 연체채권
4,500억 원 소각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

KB희망금융센터

채무 조정부터 심리적 안정까지
재기를 넘어 희망을 키우는 금융

 KB금융그룹

민주,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내일까지 후보 등록

계파 간 갈등 일단락

후보등록 후 21일부터 예비경선
대표 후보 3인, 최고위 후보 8인 추려
‘선출직 최고위원제’ 도입 무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5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넘게 지속돼온 계파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해서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과 함께 전라지역(대구·경북·경남)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에 기중치 5%를 주는 안건도 당무위에 부의했다. 당은 16~1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등록 후 21일부터 예비경선을 치러 당 대표 후보는 3인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3인 이상 경선에서 투표자는 3명의 후보의 선호 순위를 적어 투표한 뒤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투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 박지원 최고위원. /뉴시스

각각 가산해 단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를 의결해 최고위에 보고했으나, 친청(친정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재논의를 거쳐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선호투표제 도입 안건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던 정청래 후보도 전날(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전준위 의결에도 친청계 의원들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선출직 최고위원제를 두곤 공개 최고위에서 계파 간 갈등이 드러났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청년들의 민심을 당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친청(친정청)계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며, 특정 계파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지도부의 밀어넣기 위한 속셈이 있다고 봤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청년의 목소리를 당의 중심에 두자는 최소한의 제도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당원주권을 말하고 당의 미래를 말할 수 있나”라

며 “청년의 손을 뿌리친 결정에 동참한 분들은 당원주권을 말할 자격도 당의 미래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왜 애당초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고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때를 쓰고 마치 청년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비난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라며 “한다고 치자.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준비할 시간이 며칠이나 되나. 그 며칠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 당원들이 청년 최고위원에 관심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당대회 물 외에도 당 대표 후보들은

직접 신경전을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아래로 깔아보는 느낌이 있더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공사가 구분 안 된 게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국가 원수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가 독자적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후보를 낸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을 두곤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라며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낳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의원이 자신을 ‘역적’에 비유하고 ‘목을 잘라 정발 전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인가. 섬뜩하고 무섭다”면서 지지층에 호소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광주 간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장외투쟁

잠실·인천·부산 거쳐 광주서도 시위
“특검법 미반영땐 제한절행사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당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비토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장외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8일과 12일 각각 인천과 부산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 참석해 시민 참정권 훼손을 규탄했다. 7일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이날은 시민운동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 또한 장 대표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 제한절인 17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규탄 시위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시위에 참석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어, 지



방선거 이후 장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당 일각을 상대하기보다, 참정권 규탄 시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참정권 훼손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에게 추천권한이 있는 특검법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한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제3자 특검 추천권 부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를 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후보를 99명 추천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검 후보 단 한 명만 추천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곤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데려왔을 때 힘과 에너지가 강해져야 통합이든 덧셈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도 전력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람이 늘어나도 뺄셈정치”라고 지적했다.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장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5선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표로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장 대표가)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나중에 이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장 대표가 중점을 두는 장외투쟁과 관련해 “당 개혁보다도 바깥 돌아다니면서 장외 집회 하고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당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檢 보완수사권 유지·중수청법 연기
소속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출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시행을 연기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박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당이 마련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미이행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췄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박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이르면 15일 심사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14일)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태홍 기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속도 내라”

》1면 ‘부동산 자산 비중…’서 계속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

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냐’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종의 선전,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살고 싶겠냐. 입주 당하고 7년 버텨서 원리금 당감받아가지” 이렇게 마음먹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 베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다 이자로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질문이 많았다. 질문을 취합한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디폴트옵션 등 활용, 비보장형 수익률 43% ‘보장형의 15배’

퇴직연금 운용 전략

퇴직연금의 63% 보장형에 집중
美·호주 등 주요국 보장형 10% 수준
디폴트옵션·ETF·AI 등 활용으로
퇴직연금 투자 수익률 제고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유가증권 투자가 활성화되며 비보장형 수익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상승하고 중·장기 투자를 위한 ‘생애주기형 ETF’도 보편화한 만큼, 비보장형 상품 투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비보장형 수익률 급등

1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37개 퇴직연금운용기관의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평균)은 42.65%(DB형 20.84% DC형 56.17% 개인형IRP 49.45%)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2.89%)의 약 14.8배 수준이며, 최근 5년의 비보장형 수익률(9.29%)과 비교해도 약 4.6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유가증권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비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보장형과 비보장형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올렸지만, 비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다. 2분기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 536조원 가운데 340조원(63.4%)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DC형·IRP에서도 47%가 보장형 상품을 택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주요국 퇴직연금의 보장형 선택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퇴직연금의 비보장형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입자들이 운용에 어려움을 느껴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의 66.4%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57.1%는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은 있지만, 운용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 디폴트옵션·ETF 등 활용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이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을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전에 약정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운용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만큼 운용 난이도도 낮다. 특히 사전에 운용방법을 지정했다더라도 중도 변경도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금융권에서도 디폴트옵션의 수익률 경쟁이 활성화됐고,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중”이라면서 “특히 각 은행이나 증권사 점포에서도 디폴트옵션 안내를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 상담을 제공하는 만큼, 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를 희망하지만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생애주기형 ETF(지수추종펀드)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증권사가 주로 취급하는 생애주기형 ETF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고,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배당형 상품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키워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상품이다. 하나의 상품으로 중·장기 자산운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난이도가 낮다.

◆ 퇴직연금도 ‘AI’ 활용

금융권에서 확산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연금 서비스도 퇴직연금 운용을 돕는다. 연령, 소득, 노후 준비 수준과 은퇴 시점 등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연금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시장변동성 구간에서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 전략에 주안점을 둔 투자 일임도 가능하다.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부

서장은 최근 메트로신문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디폴트옵션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라며 “초개인화된 AI 연금관리 서비스를 통해 연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자산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희망한다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도 고려할 수 있다. DC형에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기관이 다수 투자자의 적당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가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의 투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 당시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AI시대, 데이터 활용이 경쟁력… 인재육성 적극 지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
인재양성 프로그램 ‘KB AI 랩’ 출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AI 시대에는 모든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이 AI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육성을 아끼지 않고,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이번 세미나는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 확산과 그룹 차원의 AI 전환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개최됐으

며, 실전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BAI 랩(Lab)’도 출범했다.

세미나에서는 KB금융의 AI 전략인 ‘KB 위드(With) AI’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와 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KB금융의 주요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세미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계열사에 생중계됐다. 임직원을 위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업무 혁신 사례로 공유된 ‘KB DAVIS’, ‘AI Dev 센터’ 등을 직접 체험했다.

‘KB DAVIS’는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시각화한 보고서까지 제공하는 ‘개인화된 AI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다. ‘AI Dev 센터’는 AI 에이전트가 개발 모든 과정

에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 개발 환경이다.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설계와 코드 작성, 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KB BAI 랩’은 그룹 AI 교육체계인 ‘KB AI 아카데미’ 최고 과정(AI Expert)을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실제 현업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 위드 AI’는 AI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함께 일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동반자로 활용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철근값 18.6% 급등 주택 분양가 오른다

분상제 적용 건축비 0.77% 상승

중동전쟁으로 건설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건축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m²당 223만 7000원으로 직전 고시(222만 원)에서 0.77% 상승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민간택지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다만 공사비 변동은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3월 정기 고시 이후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18.6% 상승하면서 건축비를 조정 고시하게 됐다.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BNK금융 ‘지역경제 대응’ 자회사 조직개편 나서

부울경 경제연구팀·ESG전략팀 신설
‘AX추진단’ AI기반 업무혁신 본격화

BNK금융그룹이 하반기 경영전략을 실행 중심 조직으로 구체화하고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회사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15일 BNK금융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경제 대응 강화 ▲ESG 전략의 지역화 ▲미래금융 대응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생산적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주 차원에서는 BNK경영연구원 산하에 ‘부울경 경제연구팀’을 신설한다. 부울경 산업과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하는 지역 특화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주사에 ‘부울경ESG전략팀’을 신설해 ESG 전략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한다. 지역 현안과 연계한 ESG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을 확대해 지역 상생 금융그룹의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금융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그룹 인공지능전환(AI) 실행을 총괄

하는 ‘AX추진단’을 신설해 AI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추진단을 통해 지급결제와 디지털자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은행 계열사는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지역주력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각각 ‘산업금융전략팀’을 신설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방산, 우주항공, 친환경조선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밸류체인 기반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BNK부산은행은 ‘해양금융추진단’을

신설해 해양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선박금융과 해양인프라 금융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평가 기능을 혁신 성장금융단으로 이관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BNK경남은행은 중소기업의 세대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승계지원팀’을 신설한다. 승계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연계한 윈윈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부울경 중심의 연구 역량과 ESG, AX-디지털자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생산적금융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 ‘원가쇼크’ 지속 폴더블 등 신제품 가격인상 현실화

메모리 반도체·AP 등 원가 급등
시장 전반 가격조정 기조 확산
Z폴드8, 20만원 안팎 인상 전망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핵심 부품 원가가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잇달아 판매가 인상을 검토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가격 조정 기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예정된 ‘갤럭시 언팩 2026’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플립8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와 2나노 공정 기반 AP, 대화면 OLED 패널 등 핵심 부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AI 기능 강화를 위한 고사양 부품 탑재가 확대되면서 갤럭시 Z 폴드8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일반 바(Bar)형 스마트폰보다 대화면 OLED 패널과 복잡한 힌지 구조, 고용량 메모리 등 고가 부품 비중이 높아 원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제품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생성형 AI 기능 고도화에 따라 메모리 용량 확대와 최신 AP 탑재가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제조원가는 전작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

해졌다.

출고가는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갤럭시 Z 폴드 8 256GB 모델 기준 약 20만원 안팎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부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폴더블 제품군 역시 원가 부담을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범용 D램과 모바일 메모리 공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스마트폰용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잇달아 가격 인상 카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 맥스(12GB RAM·1TB)의 부품원가(BOM)는 전작보다 약 3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2나노 공정 기반 AP와 신규 패키징 기술 적용도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800달러급 스마트폰의 부품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분기 약 14%에서 최근 약 40%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D램과 낸드플래시 비용도 약 63달러에서 291달러 수준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 강화를 위해 메모리 탑재량을 줄이기 어려운 점도 제조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고용량 모델을 중심으로 평균 200달러 안팎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제조사들이 핵심 부품 가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구글 역시 예외는 아니다. IT 전문매체 딜랩스는 오는 8월 공개 예정인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11’ 시리즈가 유럽 시장 기준 전 모델 가격을 약 100유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 모델인 픽셀11은 899유로에서 999유로로 오르고, 픽셀11 프로와 픽셀11 프로 XL, 폴더블 모델인 픽셀11 프로 폴드까지 전 라인업이 가격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저장용량을 128GB에서 256GB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품 시작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인상은 개별 제조사의 가격 정책이라기보다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AI 기능 고도화로 고사양 부품 탑재가 필수화되면서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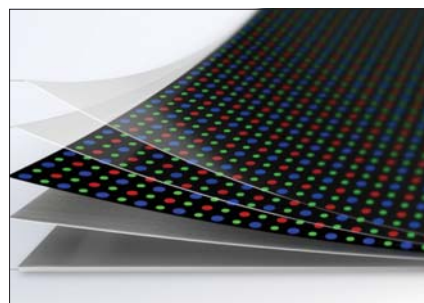
삼성, 신소재 기술 ‘플렉스 티타늄’ 공개

폴더블 화면 주름·내구성 개선

삼성전자가 차세대 갤럭시 폴더블에 탑재할 신소재 디스플레이 기술 ‘플렉스 티타늄(Flex Titanium)’을 공개했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앞두고 폴더블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혀온 화면 주름과 내구성 개선을 앞세워 완성도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플렉스 티타늄은 디스플레이 내부의 플라스틱 필름을 ‘티타늄 합금 필름’으로 대체하고 엮그 레이어드된 ‘티타늄 플레이트’를 결합한 독자적 티타늄 이중 구조 기술이다. 7세대에 걸쳐 축적한 폴더블 설계 노하우를 집약해 얇은 두께와 유연성,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OLED 패널 하단의 티타늄 합금 필름은 기존 폴리머 필름 대비 약 20배 높은 강성을 갖추면서도 초정밀 압연 공정을 통해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얇게 구현됐다. 합금 필름을 받치는 티타늄 플레이트는 고도의 홀(hole) 가공 기술로 접합 부위의 미세 홀 크기를 대폭 줄여 펼쳤을 때는 화면을 견고하게 지지하



플렉스 티타늄 디스플레이 이미지. /삼성전자

고 접을 때는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고해상도 설계와 차세대 유기 재료를 적용해 화질을 높이면서 소비 전력은 낮췄다. 티타늄은 고탄성·고강성 특성 탓에 얇고 유연하게 접혀야 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어려운 소재로 꼽혀왔으나, 삼성전자는 독자 공정 기술로 이를 극복했다.

플렉스 티타늄은 차세대 갤럭시 폴더블에 최초로 적용되며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8세대 폴더블 라인업을 선보이며 기존 폴드·플립에 더해 가로 화면 비율을 넓힌 신규 폼팩터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한화솔루션·시스템, 우주전력 사업 본격화

고효율 태양전지 상용화 계획

한화솔루션이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위성용 태양전지 개발에 나서며 우주 전력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상용 태양광 시장에서 축적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초저궤도 위성용에 적용해 2028년 우주 실증을 거쳐 2029년 이후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규셀부문은 한화시스템과 위성용 고효율 태양광 셀 및 패널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솔루션의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과 양산 역량을 한화시스템의 위성 개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궤도 군집 위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위성의 성능과 운용 기간을 좌우하는 전력 공급 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위성용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300억원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기간 고효율 셀 설계와 성능 향상, 우주 환경 신뢰성 검증을 비롯한 핵

심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대상은 초저궤도 위성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태양전지와 패널이다. 초저궤도에서는 제한된 면적에서 높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동시에 위성 무게를 줄이고 방사선과 원자산소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도 확보해야 한다.

한화솔루션은 탠덤 기반 고효율 태양전지들 중심으로 셀 패키징과 위성용 패널 적용 기술까지 개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실제 발사체를 활용한 우주 실증도 병행해 성능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주에 필요한 초기 실증 이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사는 2028년까지 시험 위성을 통해 기술 검증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0.15m급 초저궤도 초고해상도 합성개구레이더(VLEO UHR SAR) 64기 군집 사업과 연계해 개발한 탠덤 태양전지를 실제 위성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초저궤도에서 확보한 기술을 저궤도(LEO)와 중궤도(MEO) 등 다양한 위성 운용 환경으로 확대한다.

/원관희 기자 wkh@

현대차·SK온, 美 배터리 합작공장 본격 가동

현대차 미국 공장 배터리 납품
완결형 생산체계 구축 이정표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한 배터리 합작공장이 양산을 시작하고 현대차 미국 공장에 첫 배터리 납품에 들어갔다. 발표 3년 반 만에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 배터리-현지 생산 전기차’로 이어지는 완결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이정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SK온의 합작법인 ‘HSBMA’(Hyundai-SK Battery Manufacturing America)는 지난달 조지아주 바토카운티 공장에서 초기 생산에 돌입해 조지아주 서버너 인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배터리 공급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생산 초기 단계로 점진적으로 가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BMA는 2022년 12월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된 뒤 2023년 양사가 총 50억달러(약 7조4250억원)를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양사가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3월 사명을 ‘HSBM A’로 확정하고 상업 가동 준비를 마무리해 왔다. HSBMA에서 생산한 배터리 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조립한 뒤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된다.



‘HSBMA’ 공장전경

약 330만 제곱피트(약 30만 7000㎡) 규모인 이 공장은 3500명 이상을 고용할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35기가와트시(GWh)로 전기차 약 3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다. 공장이 HMGMA는 물론 기아 조지아공장,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과 인접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SK온으로서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한층 두텁게 하는 계기다. 기존 조지아주 커머스의 단독 공장 ‘SK배터리아메리카’(SKBA·22GWh)에 이번 HSBMA(35GWh)가 가세했고 테네시주 블루모빌 SK 공장까지 더하면 미국 내 3각 생산 체제가 갖춰진다. 다만 SKBA 커머스 공장은 올해 3월 약 1000명 규모의 감원을 단행하는 등 미국 전기차 수요 둔화 속 가동률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조지아주는 HSBMA 유치를 위해 6억 41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리비안 전기차 공장과 함께 조지아주가 유치한 역대 최대급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배터리 포트폴리오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최근 메타플랜트 부지 내에 완공됐다. 이 공장은 지난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여파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다.

업계는 HSBMA의 메타플랜트 배터리 공급이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강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SBMA 대변인은 “HSBMA 대변인은 “현재 생산 초기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운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가온전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사업 박차

SK하이닉스 배전 케이블 공급 확대

가온전선이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전 케이블을 공급하며 반도체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천·청주 공장에 이어 용인에서도 공급 실적을 확보한 만큼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온전선은 최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백억원 규모의 배전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으로 SK하이닉스 이천·청주 공장에 이어 용인 클러스터까지 공급 범

위를 넓혔다. 대규모 신규 팹이 들어서는 용인에서도 공급 실적을 확보하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 전력 인프라 분야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하반기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가온전선은 미국 기업이 추진하는 반도체 생산 시설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반도체 생산 시설은 하나의 거대한 전력 인프라 현장”이라며 “국내에서 축적한 공급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민희 기자

상생결제 외형 성장에도 낙수효과 미미… “관리 강화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상생정책 평가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낮아
‘주요 원재료’ 기준도 불명확
상생결제 1차 협력사에 편중
2차 이하 실제 지급률 6.5%
성과공유제 관리 기반도 미흡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상생협력 정책인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결제, 성과공유제 곳곳에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우 낮은 인지도, 엄격한 적용요건, ‘주요 원재료’ 개념의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현장 확산이 더디다. 상생결제는 실제 운영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2·3차 이하 협력사로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미흡한 관리 기능도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펴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기업들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알고 있다’는 54.7%, ‘전혀 알지 못한다’는 45.3%로 절반 가까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인지도 조사 결과 역시 ‘제도를 알고 있다’는 답변 비율은 원사업자가 39.3%, 수급사업자는 30.3%에 각각 그쳤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행 법령상 정의된 ‘주요 원재료’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것도 제도 운영상 한계로 꼽혔다.

보고서는 “현행 규정은 원재료의 개념적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거래에서 어떤 품목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볼 것인지는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져 있다”면서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

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동약정 체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생결제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상생결제를 통해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매기업(누적)은 2021년 545개에서 2025년에는 839개로 증가했다. 실제 지급 기업도 같은 기간 414개에서 668개로 크게 늘었다. 거래기업(협력사)도 2021년 14만9641개사에서 2025년에는 18만5385개사로 증가해 3만5744개사가 새롭게 상생결제 생태계에 편입했다. 상생결제 지급액 역시 2021년 142조8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 증가, 5년만에 약 46조원(약 32%)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기준 전체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1000억원 중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은 185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그런데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 협력사로 지급 가능한 상생결제액 52조100만원 중 실제 지급한 금액은 3조3600억원으로 전체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예정치는 상생결제가 ‘구매→1차’에 머무르고 낙수효과가 낮은 이유로 ▲대금 수취 후 재발행을 저하 ▲현금 선호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운영한지 10년이 훌쩍 지난 성과공유제에 대해선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성과 지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고려아연, 美 통합제련소 정치권 힘 실린다

블랙번 상원의원, 테네시 부지 방문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 현황 점검
한미 경제안보·핵심광물 협력 논의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미국 정치권의 지원을 대거 끌어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 유력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마사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프로젝트 크루서블 부지와 크루서블 징크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프로젝트의 비전 등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핵심광물통합제련소 구축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



마사 블랙번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현장 투어 중 현장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려아연

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 아연, 구리 등 전라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정제할 수 있는 통합 제련시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맞닿은 핵심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통해 미국 사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온산제련소에서 축적해 온 통합 제련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프로젝트 크루서블

의 추진 현황 및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계획,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혁신적인 인재들과 함께하고, 이들이 테네시주에 도입하고 있는 수준 높은 기술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테네시주 가정에 새로운 기회이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 세대를 아우르는 투자로, 테네시주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정책방송 통합 브랜드 ‘생생활로’ 론칭

공영홈쇼핑, 中企 등 판로지원 강화
상생 가치에 생방송 역동성 결합

공영홈쇼핑이 정책지원 방송 통합 브랜드인 ‘생생활로’를 론칭한다.

정책사업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생생활로’는 공영홈쇼핑의 핵심 가치인 ‘상생’에 생방송의 역동성을 결합한 이름이다. ‘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수 상품을 발굴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생생활로’ 방송에 로고를 상시 노출하고 정책 방송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도록 연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착한 소비’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생생활로’를 통한 우수 성공 사례도 적극 알리며, 브랜드 자체의 마케팅 효과와 신

뢰도를 함께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생생활로’ 첫 방송은 16일 진행된다. 이날 ▲의성농협자두(방송시간 오후 12시 40분) ▲월야농업 단호박(“ 오후 1시 30분) ▲제주하우스감귤(“ 오후 2시 20분) ▲사랑해대구(“ 오후 3시 10분) ▲두부면(“ 오후 4시) ▲맛자반 순살 간고등어(“ 오후 4시 50분) 등 6개 상품을 차례로 소개한다.

공영홈쇼핑의 정책사업 방송은 지난해에만 358개 상품을 발굴해 337억 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2개 상품은 우수한 성과를 거둬 일반 방송으로 전환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생생활로’라는 통합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단순한 일회성 판로 지원을 넘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효성, 창립 60년 만에 ‘문과 인재’만 채용

사학·철학·미학·어학 전공자

효성그룹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인문대학 및 문과대학 학사·석사 학위 취득자와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사학·철학·미학 등 인문학 계열과 국어·국문·영어영문 등 어학 계열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

효성그룹이 인문계열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1966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재계에서도 특정 계열 전공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효성그룹은 글로벌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과 어학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우대하며, 입사 이후 배치 직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번 채용에는 평소 인문학과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모두의 챌린지’ 확대

중기부, 스타트업 방산 진출 지원

정부가 스타트업의 방위 산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모두의 챌린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 모두의 챌린지 사업(방산)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수요 기업이 제시한 기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기술검증(PoC)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과제별 협업 자금 최대 1억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사업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앞장”

기술보증기금 신입 이사장에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대표(사진)가 임명됐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정 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하는 자리로, 권 신입 이사장 임기는 2029년 7월 14일까지 3년이다.

권 이사장은 1968년생으로 대구영진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우리은행 투자금융본부와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인천시장 경제금융·투자 특별보좌관,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상임이사, 김포골



드라인운영 대표, HUG 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금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식견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권 이사장은 “인공지능·딥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보가 앞장서야 한다”며 “기술보증을 비롯해 기술사업화, 인수합병(M&A), 기술거래, 기술보호 등 혁신성장 지원을 한층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혁신의 선도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KT ‘밀리의서재’, 결합상품 부당지원행위 조사

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두고 콘텐츠 공급 거래금액 조사 나서

KT, 이동통신 사업서 이용권 제공 밀리의서재 코스닥 상장 영향 등 검토

KT가 계열사 밀리의서재를 활용한 결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각종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KT가 밀리의 서재와 장기간 지속한 결합 상품 판매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달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최종 지배회사인KT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밀리의 서재에 현저히 낮은 거래 금액으로 콘텐츠를 공급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니뮤직을 통해 밀리의서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밀리의서재 최대 주



KT가 계열사 밀리의서재를 활용한 결합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따봉AI

주는 지분 38.71%를 보유한 지니뮤직이다. 지니뮤직의 모회사는KT스튜디오지니로, 이 회사 지분 전부는KT가 보유하고 있다.

KT는 밀리의 서재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다. 이동통신 사업에서는 고가의 요금제 선택과 이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정할때 밀리의서재 이용권을 선택지로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핵심 금융 계열

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무료로 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구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KT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한 이후 2022년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3년 566억원에서 이듬해 726억원, 지난해 882억원으로 매년 외형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2023년 코스닥 상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KT가 밀리의서재에 어떤 조건으로 고객을 끌어왔는지, 정상적인 시장 거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보고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밀리의 서재를 멤버십에 포함시킨 조건이나 정산 단계, 프로모션 비용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인다.

다만 정산 단계 등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인정될지 미지수다. 밀리의 서재가 가진 콘텐츠 독립성이 인정되면 경쟁사인 리디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서다.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산 방식과 다른 콘텐츠 사업자와의 제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내부 관계자는 “부당 지원 행위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기업이 (밀리의 서재를) 지원한 의도가 뚜렷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소상공인 앱 ‘시장이지’ 매장운세 콘텐츠 선봬

‘오늘의 영업 지수’ 콘텐츠 제공도

KT는 소상공인 전용 앱 ‘시장이지’에서 신규 콘텐츠 ‘매장운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6월 출시한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시장이지’는 AI 이미지 제작부터 사업 성장 리포트까지 각종 경영 지원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현재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신규 콘텐츠 매장 운세는 사장님들이 자신의 매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매장 돈그릇 리포트는 개업일, 주소, 업종, 오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체적인 사업 성향을 알려준다. 재물운, 손님운, 위기 대응력, 성장 시기 등 점수를 도출하고 해설을 통해 흥미롭게 풀어낸다.

당일 영업 컨디션을 점수로 환산해주는 ‘오늘의 영업 지수’도 있다. 여러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오늘의 처방, 행운의 컬러 등 매장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결과도 제시한다.

시장이지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공유도 가능하다. 비회원에게는 일부 결과만 제공된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美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투자… AI 생태계 확장

올해 초 ‘레인’ 시리즈C 투자 참여
Visa 연계 스테이블코인 활용 ‘강점’
AI 중심 미래전략, 금융 인프라 확대

네이버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한 것은 단순한 스타트업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AI를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는 네이버가 이번에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까지 투자 영역을 넓히면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IT·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법인인 네이버 벤처스는 올해 초 레인의 시리즈C 투자에 참여했다.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인은 이번 라운드에서 총 2억 50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19억 5000만달러(약 2조 7000억원)로 평가됐다.

2021년 설립된 레인은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카드 발급과 결제, 지



네이버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Rain)’에 투자를 단행했다. /따봉AI

갑, 정산, 해외송금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비자(Visa) 네트워크와 연계해 기존 카드 결제 환경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AI 다음은 ‘결제 인프라’

업계는 이번 투자를 AI 중심이었던 네이버의 미래 전략이 금융 인프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은 생성형 AI 경쟁과 함께 결제·송금 인프라 확보에도 공

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기업 간 정산과 해외 송금, 글로벌 커머스의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인프라 기업의 가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AI 검색과 AI 에이전트, 커머스 고도화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디지털 금융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은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네이버가 AI와 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시너지 가능성

이번 투자를 두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추진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나온다.

네이버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 자산과 간편결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레인이 보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가 더해질 경우 해외 결제와 글로벌 커머스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시너지는 업계의 전망일 뿐,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 계획은 아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당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것이라기보다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핵심 기술과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AI와 커머스, 핀테크를 모두 갖춘 네이버가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해외 도착하면 로밍 자동연결”

‘로밍패스’ 개편… ‘심플랩’ 의견 반영

LG유플러스는 해외 로밍 서비스 ‘로밍패스’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해외에 도착하면 즉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절차를 줄이게 핵심이다. 고객이 현지 공항에 도착해 네트워크에 접속하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된다. 기존에는 국가별 시차와 서머타임을 고려해 현지 도착 시간을 직접 입력해야 로밍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족 간 데이터 공유 설정과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족 로밍 대표 가입자가 구성원들의 로밍 가입과 데이터 공유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가입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부족에 따른 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해외에서 여러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국내에서 이용 중인 패드를 로밍 가입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특정 기간 여러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로밍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설정 이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회사는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에서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현지 도착 시간 설정과 가족 간 공유 절차, 스마트 기기 연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맞춰 로밍 가입부터 이용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전환했다.

/조민선 기자

SKB, ‘B 티비 핫딜’ 누적판매 60억 돌파

전 품목 무료배송, 10개 홈쇼핑사 제휴

SK브로드밴드는 숏폼 커머스 서비스 ‘B티비 핫딜’이 누적 판매 6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B 티비 핫딜은 다양한 홈쇼핑 상품을 모바일로 보는 것처럼 1분 내외 분량의 짧은 숏폼 영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홈쇼핑 업계 상생을 목표로 지난 11월 처음 선보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비스 론칭 8개월 만에 누적 판매액 60억원을 달성했다. 누적 판매량은 27만 건에 달한다.

이는 TV 커머스 성공 모델로 평가된다. 기존 홈쇼핑 방송이 1시간 동안 하나

의 상품만 소개했다면, B티비 핫딜은 짧은 시간에 많은 상품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커머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고객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다.

또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한다. 소규모 생필품을 언제든지 탐색해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홈쇼핑은 대용량 상품 위주로 정해진 시간에만 구매할 수 있었다.

제휴 홈쇼핑사는 론칭 초기보다 두 배 가량 늘어 총 10곳이다. 현재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GS SHOP, SK스토아, KT알파쇼핑, 소풍엔티, W쇼핑 등이 상품을 판매 중이다. 판매 상품도 월 40개에서 174개로 대폭 확대됐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카톡 밀린 대화 내용 AI 요약으로 한눈에”

‘챗GPT 포 카카오톡’ PC 버전 확대

카카오는 카카오톡 6차 정기 업데이트(v26.6.0)를 진행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AI 기반 기능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 적용된 채팅방의 ‘대화 요약’ 버튼을 누르면 밀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장기간 확인하지 않았던 채팅방에서도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챗GPT 포 카카오톡’의 이용 범위도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확대됐다. 모바일에서 이용하던 대화 맥락과 설정을 그대로 이어 사용할 수 있으며, 채팅방 상단의 ‘챗GPT’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진을 AI로 재생성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용자는 사진을 선택한 뒤 ‘AI로 만들기’를 통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나 색연필 드로잉 등 다양한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다.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대화 중 공유한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프로필 게시물 등록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오픈채팅에는 챗봇(메타) 기능이 도입됐다. 방장이 원하는 챗봇을 채팅방에 초대하면 이용자는 별도 화면 이동 없이 낱씨, 주식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메시지 발송 후 24시간 이내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지원한다. 신규 기능은 카카오톡 v26.6.0 이상 버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최빛나 기자

레버리지에 흔들리는 韓 증시… F4 중심 제도보완 가시화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단일종목 상품, 시장 변동성 키워
李 대통령, 보완대책 마련 지시
금투업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코스피의 격렬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건 단 2개 주식,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이들 종목의 주가 급등락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결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으로 한층 심화됐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 한국증시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다.

정부가 오징어게임 같은 한국 증시를 진정시킬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라는 ‘꼬리’가 증시라는 ‘몸통’을 뒤흔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 요구까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기초자산 하루 등락률의 2배로 움직이므로 걸린 돈의 크기를 매일 원금의 2배로 맞춰놓아야 한다. 이때 적은 증거금으로 많이 살 수 있는 선물이 쓰인다. 주가가 오른 날은 늘어난 원금에 맞춰 걸린 돈의 크기를 더 키우고, 내린 날은 줄어든 원금에 맞춰 더 줄여놓아야 한다. 결국 증시 변동성만 한 방향으로 더 키우는 꼴이 된다.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올해 44일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직전까지 96거래일

동안 26일이었고, 출시일 이후 8일까지 30거래일 동안에는 18일이었다. 해당 기간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시 전 27%에서 출시 후 50%대로 두 배 경증 났었다. 그만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3% 이상 급등락한 날이 더 잦았다는 뜻이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공개한 ‘최근 국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해외 시각’ 보고서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13일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한 것을 두고 “반도체 섹터의 실적 악화 등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과 시장 심리에 의한 포지션 정리 성격

이 강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레버리지 ETF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 변동성을 증폭시켜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과열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 쏠림을 심화시키고 일일 리밸런싱과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 조정 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뿐 아니라 환매 증가와 포지션 재조정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해법 찾기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운용사에서 내놓은 해당 상품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넘나들고 있어 상장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상장폐지하면 상품에 담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과 선물을 한꺼번에 팔아 투자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투자자들의 상장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

어서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

대안으로는 교육 강화와 기본예탁금 상향이 거론된다. 현재 1000만원인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이나 5000만원으로 올려 감내 가능한 투자자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투자자 맞춤형 위험경고 강화, 상품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일 리밸런싱과 헤지 거래 시기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며 “각사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당국,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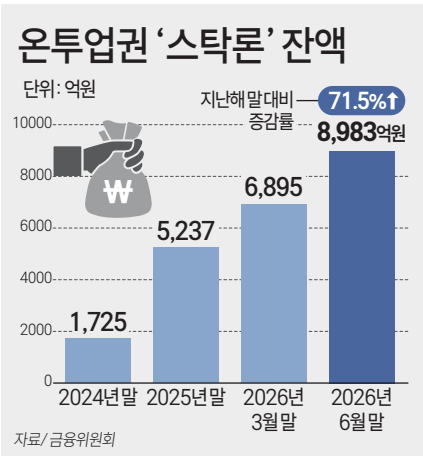
(주식담보대출)

업자, 신규 취급액 30% 이내 관리
차주 1인당 잔액 최대 10억 제한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서 빠르게 불어난 스탭론(주식담보대출)에 제동을 건다.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온투업권의 스탭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탭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이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안

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온투업권을 중심으로 스탭론이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탭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5237억원)보다 3745억원(71.5%) 증가했다. 증가 폭만 보면 2024년 1407억원, 2025년 3513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이를 뛰어넘으며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새 관리 방안의 핵심은 스탭론 취급 비중과 차주별 대출 한도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온투업자는 매월 신규 스탭론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탭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해당 기준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주 1인당 스탭론 잔액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투자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온투업체의 스탭론 편중 영업을 완화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대규모 반대매매나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온투업체별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실시

기초연구 활성화… 자본시장 발전 기여
금융업계 종사자·대학생·연구원 등 지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제도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도 연구비 지원과 우수논문 시상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증권·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본

시장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을 비롯해 금융업계 종사자, 연구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기타 금융전문가 등이다.

거래소는 공모를 통해 증권·파생상품 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논문에는 별도의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우수논문상은 제출된 논문 가운데 최우수상 1편에 7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500만원, 장려상 2편에 각 300만원의 상금을 수

여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연구과제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비 지원은 최대 11편의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구 과제는 거래소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과제로 나뉜다.

올해 지정과제는 ▲ETF 시장 고빈도 거래자의 과다호가와 유동성 공급 실태 ▲탄소크레딧 인증·등록 인프라 구축 ▲국내 미국달러선물옵션 도입 활용 방안

▲증권시장 위험액 측정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 등이다. 자유과제는 대체거래소(ATS)·다자간거래시설(MTF) 등 시장구조 개선, 증권·파생상품 및 파생 관련 복합상품 발전 관련 사항,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불공정거래 감시 등 자본시장 전반을 주제로 한다.

선정된 연구가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과제는 편당 1000만원, 자유과제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투자 공모펀드 확대

알파셀렉션 출시… 상장주 중심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미래에셋알파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제간접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주요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롱온리(Long Only)’ 전략 비중을 높여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롱숏(Long-Short)’ 전략 펀드를 함께 편입해 운용한다.

이번 출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안정형과 공격형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 미래에셋 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은 이벤트드리븐, 채권, 메지닌, 멀티전략 등 다양한 전략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이다. 반면 새롭게 선보인 알파셀렉션’은 상장주식 중심 투자 비중을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는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일반 투자자도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3억원 제한 없이 소액으로 우수 사모펀드 운용 전략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정부가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7년 국내 최초로 사모투자 재간접 공모펀드인 ‘미래에셋 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을 출시해 운용해왔다. 해당 펀드는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 99.75%를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약 4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허정윤 기자

중동발 리스크 장기화… 해상물류 전략, 회복력으로 재편

해진공, 컨테이너시장 영향 보고서
우회 운항 늘어 거리·비용 부담 확대
수급 중심 운임 결정 구조도 변화
선사들 복수항로·허브 전략 강화
탄력적 공급관리 새 경쟁력 부상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제 해상물류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일시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며, 중동지역 리스크의 빈번함·장기화에 따라 물류 환경 자체가 구조적 재편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가 컨테이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이달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시장은 오랜 시간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선사들은 운항 거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항로를 적극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 홍해 일대의 불안정한 상



지난 5월2일 이란 반다라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상선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 /뉴시스

황이 지속되면서 주요 선사들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항 거리가 길어지고 선박운영 효율성은 낮아졌다. 여기에 중동전쟁의 여파로 기존 운영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

보고서는 홍해 사태(2023년 이후)·호르무즈 사태(2026년)를 거치며 컨테이너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요 항로의 운임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항로별 수요 및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운임 결정 방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박 공급이 늘어나면 운임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다. 이에 반해, 최근에

는 ▲우회 운항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 ▲선박 운영방식의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기존의 수요와 공급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글로벌 선사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SC는 여러 운항 경로를 확보하는 '경로 옵션' 전략으로 전환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수에즈, 희망봉 등 복수의 항로를 선택·전환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다.

머스크와 하파로이드의 컨테이너선 운항 동맹인 제마니는 정시성(일정한 소요시간)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 전략을 운영 중이다. 대형선박이 허브 항만 간 간선 운송을 수행하고, 피더선은 허브와 주변 항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다.

이들 사례는 기존의 효율성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

연성과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적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의 주요 변수로, 향후 수에즈 운하 정상화 여부 및 우회 운항에 투입된 선박의 시장복귀 속도를 꼽았다. 다만 선사들의 단계적 서비스 복귀와 감편, 선박 재배치 등 자발적인 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봤다.

이처럼 외부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곧 해운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우 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장은 "글로벌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 제공 및 분석을 통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한전, 반도체·AI 전력공급 속도전 나선다

전사 혁신 워크숍서 실행안 논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역량 결집
선제적 전력망 구축해 적기 공급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정부의 '전기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한전은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본사 차·실장, 1·2차 사업소장 등 총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사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 및 하반기 로드맵 점검 ▲100% 전력 서비스 회사 구현을 위한 CS 혁신방안 발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혁신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전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국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전력공급 속도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3일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6 전사 혁신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수요지 어디에서나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입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입지 선정 단계별 지자체 재정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 전력망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망 조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전은 일선 현장을 이끄는 사업소장의 역할을 '고객·청렴·안전 최종 책임자'로 재정립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편의 창출에 기여한 초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보상은 성과보상체계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동철 사장은 워크숍에서 "AI와 반도체로 인한 산업구조 대변환 시기에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은 한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의 에너지 신시대를 맞아 첨단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전기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을 최전선에서 선도하고 전력 신기술 기반의 생태계 혁신을 견인해 글로벌 톱 유틸리티로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부발전, 대전산단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산업부 자급자족 사업자에 선정
20년간 운영, 중부권 RE100 확대

한국서부발전이 정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주주하며 중부권 분산에너지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서부발전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공모에서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 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에너지 설비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

해 노후 산단 입주기업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RE100 대응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부발전은 이번 사업에서 핵심 사업자로서 기획부터 구축,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과 분산 에너지 설비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을 맡는다. 특히 대전 산단에 설치될 태양광 발전설비와 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며, 준공 이후에는 약 20년간 직접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 2023년부터 군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분산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쌓아왔다. 서부발전은 군산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사업 역량을 토대로 이번 대전 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 전환 역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이 같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는 동시에, 중부권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대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 선정은 군산 산업단지에 이어 노후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대산 1호' 제동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공식 통보
LDPE·EVA 시장 결합 심사 착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으로 국내 석유화학 제품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및 EVA(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가 송부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

이 합병준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 공동 최대출자자가 되며, 양사가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이 결합으로 인해 농업용 필름·식품 용기 등에 쓰이는 'LDPE' 시장과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 등에 쓰이는 '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심인들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푸드 美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22일 온라인 수출 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공유에 나선다. aT는 이달 22일 오후 2시 '미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및 현지 규제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는 현장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수출환경 변화 및 비관세장벽 현황 ▲FDA 시설실사 대응방안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대응 방안 ▲라벨링 및 성분사용기준 문제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도 설명회에 직접 참

여한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수출 전 사전 점검사항, 부적합 발생 원인, 기업 대응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은 K-푸드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출액이 8억56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11%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외 제조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라벨링 검증 등 수입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현지 규정 이해와 사전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온라인 설명회에는 미국 수출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장소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관련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햐터그룹
Haetter Group

오는 12월 3대 해상교량 건너는 ‘부산국제마라톤’ 열린다

부산 최초 풀코스 마라톤 운영
‘다리를 건너, 한계를 넘다’ 슬로건
10km 로드레이스 등 2개 부문 진행

부산의 푸른 바다와 도심을 한눈에 담으며 달리는 역대급 규모의 마라톤 축제가 울거를 찾아온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2월 6일, 부산 벡스코(BEXCO) 일원에서 부산 최초의 풀코스(4만2195km) 마라톤 대회인 ‘부산국제마라톤(Busan International Marath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초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등 부산을 대표하는 3대 해상교량을 모두 통과하는 독보적인 순환 코스로 마련되어 전국 러너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다리를 건너, 한계를 넘다(Cross The Bridges, Go Beyond)’로 확정됐으며, 대회 준비를 위한 공식 홈페이지도 본격적으로 개설됐다. 종목은 마라톤의 꽃인 풀코스(42.195km)와 대중적인 10km 로드레이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지난 2024년 부산 광안대교에서 열린 ‘2024 부산바다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다. /부산일보

다. 모집 인원은 총 1만 2000명 규모로 풀코스 5000명, 10km 코스 700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풀코스는 부산의 해안선과 랜드마크를 모두 관통하도록 설계됐다. 벡스코를 출발해 요트경기장, 동백섬사거리, 운촌삼거리를 지나 광안대교에 진입한다. 이어 용당램프, 대연고가로,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차례로 건너 뒤 충무동사거리에서 반환한다. 반환 이후에는 다시 역순으로 남항대교와 부

산항대교, 광안대교를 거쳐 출발지인 벡스코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다.

다만, 교통량이 많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와 대교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만큼 풀코스의 참가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4시간 30분 이내 완주 기록 보유자’로 참가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참가 신청 시 다른 대회의 공식 기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을 최소화하면서도, 마라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풀코스 참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열리는 10km 코스는 광안대교 상판에서 한차례 출발하는 레이스다. 이후 광안리램프, 49호광장, 삼익비치산책로, 광안리해수욕장, 수변해변로, 수영교를 거쳐 벡스코 리더스빌딩 앞에서 마무리된다. 수려한 바다 전망을 보며 달릴 수 있어 라이트 러너와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회의 참가비는 8만 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수도권 주요 풀코스 마라톤 대회의 참가비가 15만 원 안팎까지 급등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해양도시 부산의 특색을 극대화한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육상연맹(WA)의 국제공인 마라톤 대회로 승격시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지역주민 대학 장학금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으로, 신청은 양남면 나야리 월성스포츠센터 1층 방문 접수를 비롯해 우편과 이메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양남면·문무대왕면·감포읍에 접수 마감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본인 또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로,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IBK기업은행

중소 금리우대 지원 협약

김해시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업체가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김해시의 이차 보전 지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최대 연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이차 보전이란 지자체가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 실질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목포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과 공공기관, 문화시설, 버스정류장 등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내버스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이동 중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 분석 결과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2025년 86만GB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기장군

‘기장프렌즈’ 기념우표 발행

기장군과 기장우체국이 관광 캐릭터 ‘기장프렌즈’를 테마로 한 한정판 기념우표를 공동 기획·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는 지역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재해석해 기장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시대 들어 위축되고 있는 우표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초 관광 홍보와 우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기념우표 제작을 함께 추진해 왔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대경권 AI·첨단산업 인재양성

대구시·경북대와 ‘맞손’
AI 교육·연구 거점대학 육성
국가 공모사업 공동 대응도

경북도가 대구시, 경북대와 손잡고 대경권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경북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경권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대학을 공동 육성하고 초광역 공유대학 추진에도 협력한다. 이를 통해 대경권 첨단·전략산업 분야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점 육성 분야는 AI를 비롯해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대경권 핵심 산업이다. 세 기관은



(오른쪽부터)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허영우 경북대 총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14일 경북대 본관에서 열린 지역 성장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 분야 인재양성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대응에도 공동으로 나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거점국립대 패키지형 인재 양성,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초광역 공유대학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도 협력하고 있다.

또 경북대를 중심으로 일반대와 전문대가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연구, 자원 공유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올해 첫 2250억 규모 추경안 편성

확정 시 총예산 2조3250억으로

경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225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총예산은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3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1조9790억원, 특별회계는 3460억원 규모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14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차보전 10억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예산도 포함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 지원에 나선다.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사업도 담겼다. 동국대~현곡 상구간 도로개설 23억원, 천북 동산교~면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보문~구정간 도로개설 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 하천 정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POST APEC 기념관 조성 25억원, 경주읍성 성벽 복원 15억원, 인왕동사지 석탑 복원 15억원, 흥륜사지 발굴조사 10억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는 안강읍 주민복지시설 건립과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등에 85억원을 편성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남도,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액 1.5억弗

전년 동기비 19.8% 늘어

경남도는 상반기 수산 식품 수출액이 1억 561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8%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 2억 66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 목표액 2억 9000만 달러의 53.9%를 상반기에 달성한 수치다. 전국 수산 식품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전국 4위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굴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고, 고등어, 명태, 청어 등 냉동 어류의 수요가 주요 수입국의 공급 부족과 맞물려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밀키트와 즉석 간편식(HMR)

영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추진 의지

김병삼 시장, 영천경마공원 방문

영천시 김병삼 시장이 9월 13일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을 찾아 주요 시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시장은 14일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해 조성 현황과 개장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람대와 경주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영천시는 경마공원 개장을 계기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공동 유치체계 구축을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유치 논리 개발, 후보부지 검토 등 단계별 유치 활동도 진행 중이다.

시는 영천이 한국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레저파크를 보유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본사 이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마공원과 본사가 같은 지역에 위치할 경우 운영 효율성 향상



김병삼 영천시장(가운데)이 한국마사회 관계자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과 함께 말산업 관련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경마공원 활성화와 연계해 말산업과 관광, 숙박, 문화·공연,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발전 전략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앞으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천(경북)=김진곤 기자

K-편의점, 亞 중심 글로벌 영토 확장… 매출 성장세 ‘뚜렷’

CU 몽골 매장 600호점 돌파
GS25 베트남시장 양적·질적 성장
이마트24 135개 해외 점포 운영

국내 편의점 업계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영토를 빠르게 넓히며 눈부신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CU가 몽골에서 대기록을 세운 데 이어, GS25는 베트남 시장에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마트24 역시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보폭을 넓히며 K-편의점의 위상을 높이는 중이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편의점 3사는 현지 맞춤형 상품과 마스터프랜차이즈 전략을 앞세워 아시아 시장에서 점포 수를 빠르게 늘리며 해외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CU는 2018년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한 이후 약 8년 만인 올해 6월, 단일 해외 사업국 최초로 600호점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600호점인 ‘호탁온드르 숨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600km 떨어진 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장거리 여행객과 운송 기사를 위한 사위 시설과



CU 몽골 매장.



/BGF리테일 베트남 하노이 GS25 매장.



/GS리테일 말레이시아 이마트24 매장.

/이마트24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소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꾸며졌다.

현지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 그룹과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첫해 21개 점포로 시작한 CU는 지난해 상온 물류센터를 증설하고 한국형 디지털 피킹 시스템과 글로벌 IT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즉석 스무디와 get 커피를 비롯해 몽골 전통 만두튀김인 호소르를 상품화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와 K-푸드 전략을 동시에 펼치며 현지 대표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GS25는 베트남 시장에서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2018년 풍부한 인구 규모와 높은 생산가능인구를 보고 베트남에 첫발을 디딘 GS25는 현지 길거리 음식 문화에 맞춰 베트남식 호빵인 반바오를 선보이는 한편 떡볶이, 김밥 등 한국식 먹거리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렸고, 2021년부터는 현지 브랜드 편의점 중 유일하게 가맹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수도 하노이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 결과 진출 첫해 26개였던

베트남 점포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443개로 대폭 늘어났으며, 매출 역시 2018년 약 29억 원에서 지난해 약 1502억 원으로 50배 넘게 늘었다. 현재 GS25는 남부 베트남 지역 점포 수 1위, 베트남 전체 기준으로는 씨클케이에 이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후발 주자인 이마트24도 틈새시장을 겨냥해 해외 출점에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 108개 점, 캄보디아 26개점, 인도 1개점 등 총 135개 해외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현지 파트너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출해 현지 리스크를 줄였으며, 떡볶이와 컵밥 같은 한국 길거리 음식을 차별화 무기로 내세웠다. 실제로 캄보디아 매장에서는 K-푸드 즉석 먹거리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라오스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이마트24는 이달 중 인도 2호점을 개점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BGF리테일, AI 데이터 기반 리테일 혁신

인텔리시아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AI합성소비자 활용 상품기획 고도화

BGF리테일이 AI 합성소비자 기술 스타트업 인텔리시아와 ‘AI 데이터 기반 리테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합성소비자 기술과 AI 매장 디지털트윈(ParaStore) 솔루션을 활용해 소비자 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상품 기획과 매장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합성소비자를 활용한 상품 기획 및 소비자 반응 예측 ▲AI 매장 디지털트윈 기반 상품 진열·MD 시뮬레이션 ▲AI 기반 데이터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다.

AI 합성소비자(Synthetic Consumer)는 실제 소비자 조사를 대신해 AI가 수백만 명 규모의 가상 소비자 모델을 생성하고 신상품, 가격, 프로모션 등에 대한



14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에서 열린 BGF리테일-인텔리시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BGF리테일 이은관 CX본부장(좌)과 인텔리시아 백승국 대표(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반응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신제품 도시락이나 디저트 출시 전 구매의향과 선호도, 가격 및 구성에 대한 반응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기존 소비자 조사는 설문과 인터뷰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컸다. 또한 출시 이후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AI 합성소비자는 조사 기간을 3~5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증이 가능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지난 5월 편의점 도시락을 주제로 AI 합성소비자 기반 개념검증(PoC)을 공동 진행해 현업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존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도시락’을 선호한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건강하면서도 맛있어야 한다’는 복합적인 요구를 상품 기획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I 합성소비자는 소비자가 맛과 건강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석해 이러한 복합적인 수요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락 상품 구성과 메뉴 개발 방향을 도출했다.

양사는 앞으로 인텔리시아의 AI 매장 디지털트윈 솔루션 ‘파라스토어(ParaStore)’를 활용해 실제 CU 매장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상품 진열과 고객 동선, MD 구성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오뚜기가 지난 14일 경기 안양시 오뚜기 중앙연구소에서 ‘제4회 식품안전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뚜기

황성만 “식품안전 패러다임 선제적 대응”

(오뚜기 대표)

오뚜기 식품안전과학 심포지엄

글로벌 규제 대응·디지털 기술 논의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가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관리 전략을 공유하는 제4회 식품안전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일 경기 안양시 오뚜기 중앙연구소에서 열렸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주최하고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가 주관했다. 식품산업계와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글로벌 식품안전 패러다임 변화와 선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규제·정책 대응과 지능형 디지

털 식품안전관리 기술 등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산업 현장의 규제 대응 전략과 글로벌 해협(HACCP)의 발전 방향,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반 품질 모니터링과 이물 검출 기술, 식품 관련 잠재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플랫폼, 오뚜기의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는 “글로벌 규제와 HACCP 국제 동등성, AI 기반 식품안전관리 사례가 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를 높이는 데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오츠카 ‘오란씨’ 디자인 공모전

동아오츠카는 국내 최초 플레이버 음료인 ‘오란씨’가 55년간 이어온 헤리티지를 2030세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로고 ‘오란씨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디자인 플랫폼 ‘라우드소싱’을 통해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 1팀에는 400만원, 최우수상 1팀에는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작은 향후 오란씨 리뉴얼 패키지 디자인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온, 19일까지 썸소나이트 기획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롯데온이 19일까지 ‘썸소나이트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썸소나이트와 아메리칸 투어리스터의 캐리어와 백팩 등을 할인 판매하고 카드 할인과 사은품 증정 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행사 기간 썸소나이트와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제품을 할인 판매하며,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썸소나이트 레드 캐리어 단품 구매 고객에게는 테디베어 키링을,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단품 구매 고객에게는 목베개를 각

각 선착순 증정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썸소나이트 레드 ‘토이즈(TOIS) L’과 아메리칸 투어리스터의 ‘큐리오(CURIO)’, ‘플린트(FLINT)’ 등을 선보인다.

캐리어 외에도 여행과 일상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백팩도 마련했다. 렌시(LANSEE), 빅슨(VICKSON), 마론(MARON), 캠퍼(KAMPER), 올턴(ORRTON), 록스포드(LOXFORD)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여행은 물론 출퇴근용 수요도 겨냥했다.

/김서현 기자

GS리테일 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GS리테일과 환경재단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는 폭염이 본격화되는 7월과

8월 폭발 시기에 맞춰 두 차례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주민 대상 푸드마켓 ‘온기창고’를 이용하는 등록 주민이다. 지원 물품은 삼계탕, 국밥, 닭죽, 곰탕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간편 영양식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온기창고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환경재단과 GS리테일, 돈의동 온기창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취지를 공유했다.

/김서현 기자

“임상 효율화로 내실 다지고 후속 파이프라인·경쟁력 강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셀트리온 ‘CT-P51’ 임상3상
조기종료·시험계획 자진 취하
‘CT-P68’ IND 승인 획득 추가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규제 변화에 발맞춰 임상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후속 파이프라인을 보강하며 바이오시밀러 강자 입지를 공고히 한다. 글로벌 속도전과 무한 경쟁 체제에서 대규모 임상 대신 환자 수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4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의 유럽 임상3상 조기종료 및 시험계획 자진 취하를 공시했다. 임상 실패가 아닌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1분기 발표한 중장기 전략에서도 ‘CT-P51’ 임상 3상 환자 수를 기존 606명에서 220명으로 63% 이상 축소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추진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에서는 환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이나, 유럽 국가가 임상 참여국에서 최종 제외됨에 따라 해당 유

럽 임상계획을 그대로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인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 역시 임상 3상 환자 수를 375명에서 153명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린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캐나다 보건부는 ‘바이오시밀러 지침’을 10년 만에 전격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후보 물질이 물리·화학적·기능적 특성 및 안정성 프로파일 등 광범위한 분석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높은 유사성을 입증할 경우, 비교 임상 효능 연구(임상 3상)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약동학(PK) 동등성 시험(임상 1상)만으로 허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역시 입법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법’을 다루고 있다.

임상 효율화로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셀트리온은 후속 파이프라인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트렘피어 바이오시밀러

인 ‘CT-P68’ 임상1상시험계획서(IND) 승인 획득을 추가했다.

이번 CT-P68 임상 진입으로 셀트리온은 자기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 CT-P68은 인터루킨(IL) 억제제 계열이며 기존 램시마, 유폴라이마 등은 종양괴사인자 알파(TNF- α) 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아울러 최근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1상 승인을 얻은 인테그린 억제제 계열의 엔티비오 바이오시밀러 ‘CT-P45’를 더해 자기면역질환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시장에 안착한 1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오는 2030년까지 18개, 오는 2038년까지는 미공개 파이프라인 22개를 포함해 총 41개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정조준하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6년 85조원에서 2030년 274조원, 2038년에는 현재의 4배 이상인 408조원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CT-P68 개발을 통해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분야의 후속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임상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HLB, 제조시설 기준 준수… 美 진출 재개

리보세라닙 제조소 일반 실사결과
‘자발적 개선 권고 조치’ 최종 확정

HLB의 간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 미국 승인에 제동이 걸린 지 닷새 만에, 제조시설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cGMP) 실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잠시 멈춰 섰던 미국 진출 도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승인 보류 사유로 지목한 중국 내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소 일반 cGMP P 실사 결과가 ‘자발적 개선 권고 조치(VAI)’로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HLB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중국과 트너사 항서제약으로부터 해당 실사 종료 서한을 전달받았다. 이번 서한을 통해 미국 FDA는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 시설이 현행 cGMP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실사 결과를 VAI로 분류했다.

특히 ‘VAI 분류 자체가 해당 제조 시설과 연계된 현재 진행 중인 신약허가 신청에 대한 FDA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명시하고 있다.

HLB 측은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소 일반 cGMP 실사가 VAI로 종결된 데 따른 FDA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이는 기존에 예정된 Type A 미팅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승인은 불발된 상황이다. 지난 9일(현지 시간) FDA로부터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와 지적 사항을 이유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다. 항서제약은 이에 대해 오는 24일(현지 시간)까지 FDA에 답변서,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HLB 관계자는 “사실상 CRL 사유가 즉시 해소됨에 따라 FDA와 협의해 신약 허가 승인 절차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3차원 간 오가노이드 기술 확보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

대웅제약이 간 오가노이드 원천 기술을 확보해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간 오가노이드 제작 및 약물평가 기술’ 도입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생명연 손명진 박사팀의 ‘3차원 인간 간 오가노이드 제작 및 독성 평가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생명연의 3차원 간 오가노이드는 인간 간 조직과 담즙산 배출 구조인 ‘간내 담관’까지 정밀하게 모사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실험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웠던 임상 전 단계의 간 독성 평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장기 연속 증식과 동결·해동 후에도 기능이 유지돼 대량 생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을 갖췄다.

대웅제약은 이번 기술 도입을 통해 비임상 평가체계를 국제표준 수준 이상으로 고도화하게 됐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의



지난 13일 대웅제약 마곡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대웅제약의 기술이전계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권석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과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웅제약

간독성을 비임상 단계에서 정밀하게 사전 스크리닝함으로써 신약 연구개발(R&D)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비용과 소요 기간까지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이청하 기자



HK이노엔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컨디션 C.R.E.W.’ 수료식을 진행했다.

HK이노엔, ‘컨디션’ 브랜드 정체성 강화

‘컨디션 C.R.E.W’ 수료식 열어

HK이노엔의 속취해소 브랜드 컨디션이 MZ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컨디션 C.R.E.W’ 수료식이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컨디션 C.R.E.W는 대학생 서포터즈다. 모집 당시 경쟁률은 20대 1에 달했고 40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2월 발대식을 거쳐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수료식은 졸업식을 주제로 꾸며졌다. 컨디션 C.R.E.W들은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동료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활동 사례와 성과도 공유했다.

컨디션 C.R.E.W들은 그동안 축제, MT 등 300여 곳의 대학교 행사에서 컨디션 샘플을 전달하며 대학생 3만 8000여 명과 컨디션 경험을 나눴다. 특히 컨디션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온라인에서도 브랜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선보였다. 컨디션 C.R.E.W들은 4개월간 약 600건의 솜씨를 제작해 총 조회수는 289만 회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북·남미에 K-뷰티 알린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참여

애경산업이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넓히기 위한 파트너십 확보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6’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다. 제조사부터 브랜드, 원료 기업까지 다양한 주체가 모여 뷰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최신 지견을 나눈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AGE20'S), 루나 등 메이크업 브랜드를 비롯해 케라시스, 알피스트, 사위메이트, 립센트, 티슬로 등 헤어 및 바디 브랜드를 전시했다. 브랜드 대표 제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K뷰

티에 대한 몰입감을 높였다.

애경산업은 이번 행사 참여로 글로벌 유통 파트너들과 적극 교류해 신규 해외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미 및 남미 지역에서 기업과 기업 거래(B2B)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애경산업 메이크업 W.W 영업팀 홍영기 팀장은 “현장에서 K뷰티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색조 제품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일리케어 W.W 영업팀 정정일 팀장은 “헤어와 바디 제품 역시 웰니스 부문에서 검증된 제품력을 앞세워 현지 바이어들과 실질적인 유통 협력 논의를 이뤄냈다”며 “북미·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해 글로벌 토탈 뷰티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T, 러닝머신 기술 바이오 분야로 확대

SK바이오팜에 AI 기술 협력
항암 신약 개발 연구기간 단축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신약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자사 러닝머신 기술을 통해 난치성 암 치료제 연구 기간을 단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제약 전문 기업 SK바이오팜이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바이너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러닝머신 등 AI 기술을 협력했다. 바이너리는 암세포와 같은 특정 표적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물질이다. 새로운 바이너리를 발굴하려면 표적에 잘 결합하는지 물질 구조가 안정적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처럼 새로운 물질 구조를 찾는 연구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로는 다양한 후보를 폭



SK텔레콤과 SK바이오팜 연구진이 AI 기반 신약 탐색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SK텔레콤

넓게 탐색하기 어려운 게 한계다.

SK텔레콤은 러닝머신 연구에 단백질 조각 ‘프래그먼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도록 적용했다. 또 강화학습(RL)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조합에 AI가 높은 보상을 주고 최적의 바이너리를 찾도록 했다. 신규 바이너리를 병렬로 처리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도 활용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연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삼성물산·HJ중공업, ‘해모로바이홈닉’ 구축**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HJ중공업 건설부문과 협력해 홈플랫폼 ‘홈닉(Homeniq)’을 ‘해모로바이(by)홈닉’으로 구축해 스마트 주거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지난 14일 서울 HJ중공업 본사에서 주거서비스 앱인 ‘해모로바이홈닉’을 HJ중공업에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과 HJ중공업 황의하 건축사업본부장(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롯데 유통군, 폭염 취약계층에 ‘시원한 나눔’**

롯데 유통 계열사들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과 보양식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선풍기를 비롯한 폭염 예방용품과 필수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약 6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복을 맞아 약 800인분의 보양식도 지원한다. /롯데 유통 계열사

**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 위한 삼계탕 봉사**

푸본현대생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영양식을 지원하는 ‘여름맛이 삼계탕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 자원봉사단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의 지도 아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과 말반찬 100인분을 손수 조리했다. /푸본현대생명

**삼표그룹,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진로 지원**

삼표그룹이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청춘잡담(Job Talk)’을 진행하며 청년들 진로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15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청춘잡담 잡 토크’는 현직 멘토와 청년 멘티가 만나 직무 경험과 진로 고민을 나누는 관계형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삼표그룹

인사 ◆브릿지경제 △대표이사 권경훈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 이수호
◆핀포인트뉴스 △금융부 팀장 최경식
◆오마이뉴스 △뉴스본부 본부장(편집국장) 이승훈

부음 ▲구삼생씨 별세, 박상남씨 남편상, 구미성(강서힘찬병원 간호부장), 구은주, 구태형씨(라운후 한방병원 진료협력부장) 부친상, 손태형, 김규성씨 (파이낸셜뉴스 정치부장) 장인상=14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055-249-1700

윤석금 회장 “긍정의 말과 태도가 행복·성공 불러”

(웅진그룹)

46년 경영서 얻은 성공 원칙
다섯 번째 저서에 경험 녹여
돈 부르는 말·태도·사고법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46년 경영 인생에서 얻은 부와 성공의 원칙을 담은 저서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를 출간했다. 이는 윤석금 회장의 다섯번째 책이다.

15일 웅진그룹에 따르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 사고방식을 풀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낸다. 스물일곱 살에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출판, 교육,

화장품, 생활가전 렌탈 사업을 일구며 윤 회장이 몸소 겪고 증명해 낸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긍정의 언어와 인간관계 등을 다룬 ‘나를 바꾸는 법’ ▲잘파는 사람의 비밀과 생활가전 렌탈 사업의 탄생 과정을 담은 ‘일하는 법’ ▲웅진그룹의 성장 과정과 인공지능 시대 리더십을 담은 ‘미래를 만드는 법’ 등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경제적 성공에 관심이 높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큰 젊은 세대를 위해 성공의 본질을 쉽고 담백하게 풀어냈다. 윤 회장은 책에서 “긍정적인 말을 자

주한다면 부자가 될 징조”라며 ‘내가 바뀌어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 행복과 성공이 찾아온다’고 전한다. 또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내 삶이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앞서 윤 회장은 ‘말의 힘’(2024), ‘나를 돌보는 힘’(2022), ‘사람의 힘’(2018), ‘긍정이 결실을 만든다’(2009)를 각각

/김승호 기자

bada@metrosoul.co.kr



metro

LG전자, ‘라이프스굿’ 실천문화 확산

전국 10개 사업장서 ‘선당포’ 운영
임직원 선행 다짐·브랜드 체험 진행

“현재 고객뿐 아니라 미래 고객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며 라이프스굿(Life'sGood)을 실천하겠습니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CEO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서관에서 열린 브랜드 이벤트 ‘라이프스굿 데이’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직원들이 업무와 일상 속에서 브랜드 핵심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오는 24일까지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비롯해 미국 사이언스파크, 창원 스마트파크, 평택 디지털파크 등 전국 10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라이프스굿 선당포’를 운영한다. 류 CEO 등 경영진이 일차별로 참석해 참여를 독려한다.



류재철 LG전자 CEO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라이프스굿 데이’에서 선행 다짐을 적고 있다. /LG전자

선당포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전당포처럼, 임직원들의 선행 다짐을 받고 다채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콘셉트다. 업무와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선행(先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행(善行)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이 같은 참여가 모여 LG전자의 ‘라이프스굿’이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차현정 기자 hyeon@

GS 안전관리 AI ‘AIR’, 레드닷 2관왕

사용자 경험·디지털 경쟁력 인정

GS가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AIR(에어)’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인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AI로 혁신한 사용자 경험과 디지털 솔루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GS는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AIR가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디지털 솔루션’ 2개 카테고리의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매년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창의성, 디자인 품질과 혁신성,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IR는 GS가 자체 개발한 AI 위험성평가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작업명과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작업 과정을 분석해 잠재 위험요인·위험등급·예방 안전대책까지 자동으로 생성한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 쇳물 지키는 ‘노재 명장’ 첫 탄생

광양제철소 이상휘 파트장 선정

포스코가 노재 분야에서 처음으로 명장을 배출했다. 노재는 용광로와 전로 등 쇳물을 생산·가공하는 고온 설비의 내화물을 유지·보수해 설비를 보호하고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다. 포스코는 15일 사운영회의에서

‘2026년 포스코 명장’ 임명식을 열고 광양제철소 노재그룹 이상휘 파트장을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장은 기술 숙련도뿐 아니라 회사 기여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1직급 특별승진과 축하금,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유혜은 기자 dhahledhale@

SK이노, 청년 AI창업 키워 사회문제 푼다

에너지·환경분야 등 10개 팀 선발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에너지·환경·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청년 창업팀 10곳을 선발했다. 향후 개념검증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각 팀의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최종 선발팀을 대상으로 킥오프와 부트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AI 기반 에너지·사회문제 해결 기술을 보유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큐네스티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팀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감축,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개선, 희귀암 초기 진단, 실시간 디지털 수어 생성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날 부트캠프에서는 향후 4개월간 진행할 개념검증 계획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참가팀들은 AI 기술과 비즈니스 분야 특강을 듣고 솔루션을 발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원관희 기자 wkh@

VC협회, 대만·베트남과 ‘아시아 투자동맹’

국가 간 공동 펀드 조성 추진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대만, 베트남 VC업계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VC협회는 대만벤처캐피탈·사모펀드협회(TVCA·TPEA), 베트남사모투자협회(VPCA)와 벤처투자 생태계 공동 육성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시아 주요국 간의 벤처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국내 스타트업 및 VC의 해외 진출과 국가 간 공동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VC협회는 TVCA·TPEA와의 협약을 통해 한국과 대만 간 상호 투자를 지원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출자·조성



김학균 VC협회장(오른쪽)이 대만벤처캐피탈·사모펀드협회 초대형 회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VC협회

하는 크로스보더 펀드(Crossborder Fund) 설립과 회수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마사회, 직원 아이디어로 성장해법 모색

사내 공모전에 62건 접수

한국마사회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경영활동과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사내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제안들을 발굴했다. 마사회는 ‘KRA 지속성장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6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공모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영천경마공원 운영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심사 결과 ▲경영개선 분야에서는 ‘AI 기반 지능형 통합경영관리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분야에서는 ‘서울경마공원 애프터워크 라운지 프로젝트’ ▲영천경마공원 운영 활성화 분야에서는 ‘보랏빛으로 물든 영천, 말과 와인 그리고 별의 시간’이 각각 대상에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2028 대입 시행안 토대, 중3 고교 선택전략

**지 상 범****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이 상위권 대학별로 발표되며 베일을 벗었다. 이번 계획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내신 5등급제 전환', 성적표 상 '표준편차 삭제',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전례 없는 격변 속에서 대학들이 실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보여 주는 최초의 구체적인 설계도다. 과거의 고교 선택이 단순히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나 '정시 특화 고교'라는 이분법에 지배당했다면 이제는 달라졌다.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내신+세특+수능+대학별고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 체제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선발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현 중3을 위한 고교 선택의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시 교과 전형의 본질적 변모와 '숫자 1.00' 프리패스의 종말이다. 내신이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상위 10%까지 동일한 1등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은 교과 전형임에도 서류(세특 및 이수 과목) 정성평가를 15~30% 필수 결합하

거나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따른 감정 장치를 장착했다. 5개 학기 누적 올 1등급 규모는 전국 2100명 안팎으로 고도로 압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은 단순 내신 완화를 정성평가와 결합해 '진짜 최상위권'을 걸러내는 스크리닝 장치로 역이용하고 있다.

둘째, 정시 모집 내 '교과 역량 평가'의 연쇄적 확대다. 수능이 공통과목 위주로 단순화돼 동점자 변별이 까다로워지자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정시에서 '교과 이수 내용 및 성취도 정성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고교 3년간 전공 관련 심화과목을 회피한 채 교과생활을 방치하던 도피성 정시 출신 전략이나 무작정 검정고시로 돌아서는 자퇴 전략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표준편차 삭제'가 가져온 원점수 중심의 평가다. 성적표에서 고교 간 격차를 판별하던 표준편차가 삭제되면서 대학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연계 분석한다. 가장 주목하는 지표는 등급 뒤에 숨겨진 '과목별 원점수'의 절대적 값이다. 과목 평균이 낮은 까다로운 시험에서 얻은 원점수 98점과 내신 부풀리기로 평균이 높은 시험의 95점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망 고교의 학생

수, 평균 점수, 성취도별 비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제 학업 분위기를 판별해야 한다.

실제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육과정의 깊이가 있는 특목·자사고 합격 쏠림 경향이 강하다. 2028 대입 체제에서는 이러한 선별 기조가 서성이한 라인까지 도미노처럼 확산될 예고다. 이에 따른 중3의 후기 고교 선택 전략은 명료하다. 우선 학생이 진학하려는 전공 연계 필수 이수 과목이 제대로 개설되는지 확인하되, 과목별 실제 수강 인원이 무더기 붕괴해 내신 확보가 어려워지는 고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류의 학업적 깊이를 검증하는 '제시문 기반 심층 구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론·탐구 중심의 고교를 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수능 국어'로 대변되는 강력한 수능 체력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역량이 결부돼야 한다.

수학·과학 심화 선행이 탄탄하고 주도적 탐구를 즐기는 학종 최적화 유형(A형)은 특목고나 자사고가,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도 모의고사 고득점을 뽑아내는 전천후 유형(B형)은 전국단위 자사고나 교육특구 명문고가 유리하다. 성실한 자필 관리에 강해 안정적인 내신 선점 후 수능 최저 충족을 목표로 하는 유형(C형)은 교육과정이 탄탄한 지역 거점 일반고가 최적이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청년미래적금’의 사각지대

**기지 수첩****안 승 진**
(금융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가입 신청을 접수한 청년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가 23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인 만 19~34세 청년 인구가 약 10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명 중 2명이 가입을 신청한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최대 6~12%(우대형 기준)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2%의 기여금을 제공하는 우대형을 기준으로, 기관별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연 19.4%의 적금에 3년간 가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저축한 만큼 지원하는 구

조다. 12%의 적립금을 제공하는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을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6만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대형 가입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1만2000원을 받는 데 그친다. 매달 많은 금액을 내면 이득도 크다.

낸 만큼 받는 방식은 공평하지만, 충분한 자금 여유가 없는 청년에게는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자영업 등을 이유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가족부양이나 주거비 등을 이유로 생활비 지출이 많은 청년은 많은 납입금을 내기 어렵다. 첫 일자리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청년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모든 청년이 최대 납입액을 매달 낼 수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정책 사각지대도 분명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요건으로 지난해 소득 증빙을 요구한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예술인, 근로계약서를 누락

하는 경우가 잦은 일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 불안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각종 우대금리 혜택도 사라진다. 상품을 유지해도 납입하지 못한 만큼 손해가 누적된다. 20대 취업자의 20%가 근속기간 한 달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 위기를 겪는 청년들은 가입을 유지하기보다 해지 후 미래의 재가입을 고려하기 쉬운 구조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7일부터 1차 가입 신청자의 계좌 개설을 시작한다. 사업이 막 시작된 만큼, 제도를 개선할 여력도 충분하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고려한다면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적금담보대출'이나 중도해지요건 완화, 고용불안 청년을 위한 추후 납입 일부 허용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60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72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4년생** 정신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49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73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85년생**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50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2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74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5년생** 오랜 끈기와 인내가 결실을 보게 됩니다. **87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52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4년생** 연인과 다툼이나 이별수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88년생**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우연한 기회에 좋은 운을 만날 것입니다.



53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5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77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89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4년생 원통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6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8년생** 순탄하게는 사업이 흘러갈 것입니다. **90년생**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55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67년생** 재질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됩니다. **7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91년생** 조심하면 서 생활해야 합니다.



56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8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80년생**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92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57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습니다. **69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환합니다. **81년생**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93년생** 여행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8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70년생** 가까이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82년생** 안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9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59년생 귀하의 사업이 처차 진전이 있습니다. **7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운입니다. **8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김상회의四季

헌법은 삶의 보루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법 위에는 법이 있다.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다. 한 나라의 모든 법률, 명령, 조례는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만약 국회에서 만든 어떤 법이 헌법이 보장한 가치에 어긋난다면, 그 법은 효력을 잃고 사라진다. 헌법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고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을 그 바탕으로 삼았다. 헌법이라고 하면 법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만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헌법이 얼마나 내 생활과 밀접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

헌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 국회가 해야 하는 일, 권력의 집중을 막아 독재를 예방하는 견제 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자유와 권리는 대부분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어서 가능하다. 예전 왕조시대에는 왕을 욕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었다. 현대에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다.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그렇다. 또 국가가 힘으로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도 없다. 헌법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민의 권리는 흔들리고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서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3	9				7	2
2			8					
		1	7		4	2		5
			8				1	9
				9				
1	6	4				5		
3		7	5		2	9		
					9			3
5	2				6	7		8

결합형스도쿠
15.30분

결란스도쿠110
중간도수 120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2	9	8	7	6	2	9
8	9	9	6	7	1	2	2	8
9	7	6	2	8	9	2	1	8
6	2	9	8	2	8	7	9	1
1	8	7	8	6	2	9	9	2
2	6	1	9	2	9	8	8	7
9	8	2	7	9	2	1	8	6
7	9	8	2	1	8	9	6	2
2	2	8	1	9	6	8	7	9

골목 야장부터 한밤의 고궁산책… 낭만 더한 ‘서울의 밤’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시동
골목상권·문화·관광 하나로 연결
달빛야장 25곳 운영… 상권개발
박물관·고궁 등 야간개방 확대도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도심 주요 야간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 특구’ 지정 검토하고, 야외에서 먹는 ‘야장’ 문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토록 하며 박물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민선 9기 첫 정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야간경제 상생 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 정책 의제로 논의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첫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를 야간경제로 정한 것은 서울의 미래 성장축을 바꾸겠다는 의지”라며 “야간경제는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



을지로3가의 야장골목 모습.



지난 5월 경복궁 야간개장 모습.

/뉴시스

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

시는 도심 주요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상생특구에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건축물 부지 안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 ▲심야 대중교통을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하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는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

한강과 서울물빛나루 등 수변 공간은 야간 이용 제약을 완화해 24시간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경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올해 5곳 시범 운영

시는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야장’ 문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

한다.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 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을 위반하면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화시설 야간 개방·심야교통 확대

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평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는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확대 운영과 자율주행 버스·택시 도입 확대도 검토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고등교육에 써야”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학투자 강조
국가 산업과 발맞춰 인재양성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총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국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최근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도 자원 조달 방식에는 이

견이 있었지만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미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힌 점에 언급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와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대학 투자 확대 역시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재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가 교육재정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교육재정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북한산부터 한강 잇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

고양시, 18.42km 수변 문화축 구축

고양시가 북한산과 창릉천, 행주산성, 한강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하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도권 대표 수변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나섰다.

고양 블루웨이는 창릉천 18.42km 구간과 한강 수변을 연계해 자연과 사람,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수변 문화축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단절 없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국가하천 승격과 국가정원 지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창릉천을 상류·중류·하류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북한산 발원지에서 지족지구까지 이어

지는 상류 구간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힐링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족지구와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를 잇는 중류 구간은 ‘생활·문화 특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화도교에서 행주산성,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류 구간은 ‘역사·생태 거점’으로 꾸며진다. 또한 행주산성에는 완만한 경사의 데크산책로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친수정원을 조성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6.4km 구간인 고양한강공원과 행주산성한강공원, 고양대덕생태공원은 역사와 생태를 접목한 테마형 친수공간으로 재정비된다.

시는 생태공원과 시민광장, 체육시설, 전망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수변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첨단분야 우수 연구원, 70세까지 강단 선다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반도체 등 교원 인력부족 해소될 것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우수 연구원은 최대 70세까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 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교자·교사 임차 범위 확대 ▲국립대 산학협력단 임차 보증

금 면제 등 3건의 안전이 상정됐다.

교육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분야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하고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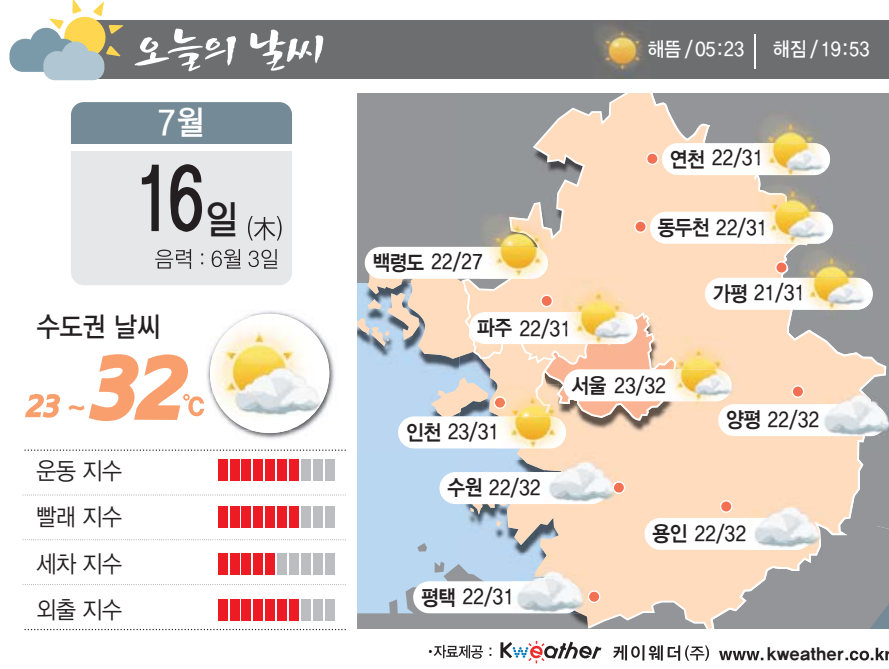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연구원 등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정년인 만 65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이 학적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원 인력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자나 교사를 임차할 경우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자·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 임차 가능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도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 보증금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공습·봉쇄 다시 꺼냈다…“호르무즈 둘러싼 장기 소모전”
▲민주공공 에볼라 확진 환자 2011명, 사망자 754명으로 급증

/사진 뉴시스

▲영국, 내년 봄부터 16~17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야간 통금’ 권고
▲“AI 잘 쓰면 월급 더 준다”…일본 기업들, AI 능력 따라 보상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률 4.7%…2분기 4.3%로 2022년 말 이후 최저
▲인도, 美관세 낮추려 ‘강제노동 반영 제품’ 수입 금지



편의점
아시아 중심으로
글로벌 영도 확장
L1



Life

셀트리온
후속 파이프라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
L2



지친 하루 깨운 한 캔... 현대인 열정 지핀 '푸른불꽃'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칠성음료 '핫식스'

학업과 업무에 지친 직장인과 학생, 짜릿한 물입을 즐기는 게이머와 스포츠 마니아들의 곁에는 늘 푸른 불꽃이 함께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10년 첫선을 보인 에너지음료 브랜드 '핫식스(HOT6)'의 이야기다.

핫식스는 강렬한 에너지와 역동적인 브랜드 콘셉트를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음료 시장을 개척하고 리드해 온 메가히트 상품이다. 최근에는 제로 슈거 및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맞춘 성공적인 라인업 확장과 더불어 브랜드 출시 이후 고수해 온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대적인 패키지 리뉴얼을 단행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출시 16년 차 국내 에너지음료 '리더' 카페인·타우린 함유... 활력 불어넣어 짜릿한 탄산에 상쾌한 음용감까지 더해 제로·고용량 등 제품 라인업 다양화

◆국내 에너지음료 시장의 개척자

핫식스는 '에너지 충전과 활력 있는 일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탄생했다. 카페인과 타우린 등을 최적으로 함유해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나 육체적·정신적 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짜릿한 탄산감과 상쾌한 음용감은 핫식스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이 되었으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불사조' 디자인을 패키지에 도입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출시 초기부터 강렬한 컬러 마케팅과 역동적인 콘셉트를 앞세운 핫식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급격히 확대했다.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험공부, 야근, 게임, 운전 등 현대인들이 활력을 필요로 하는 '결정적 순간'을 파고드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상 속 필수 음료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연매출 1000억 원 돌파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핫식스는 끊임없는 제품군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다져왔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오리지널'과 부담 없이 즐기는 '제로' 제품을 중심으로 고용량·고카페인을 선호하는 하드 유저를 위한 헤비급 라인업 '핫식스 더킹'을 선보여 세부 시장을 공략했다.

'핫식스더킹'은 강한 에너지 충전에 집중한 '파워', 상큼한 사과&키위향의 '다쉬', 자몽&딸기향의 '포스', 제로 칼로리로 부담을 없앤 '제로', 상큼 달콤한 복숭아&패션후르츠향의 '크래쉬 피치', 적포도 풍미의 '파플그레이프', 싱그러운 사과향의 '애플홀릭', 복숭아와 홍차의 조화가 돋보이는 '아이스피치 제로', 파인애플 과즙을 가득 담은 '파인버스트'까지 무려



9종의 다채로운 라인업을 갖춰 골라마시는 재미를 더했다.

최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식물 유래 카페인을 적용하고 당과 칼로리를 낮춘 가벼운 에너지음료 '핫식스 글로우(복숭아&살구, 사과&포멜로 2종)'를 출시했다.

고도화된 타깃 마케팅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증명됐다.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 음료 카테고리 매출액은 2023년 790억 원에서 2024년 965억 원으로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는 1072억 원을 기록하며 대망의 '연매출 1000억 메가브랜드' 반열에 올라섰다.

당·칼로리 낮춘 '핫식스 글로우' 출시 패키지 리뉴얼로 브랜드 정체성 강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스폰서 참여 대중과 점점 넓혀... 역동적 브랜드로

◆3년 만의 패키지 리뉴얼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핫식스는 안주하지 않고 브랜드 정체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변신을 감행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핫식스 고유 헤리티지를 한층 강화하는 패키지 디자인 전면 리뉴얼을 단행했다. 브랜드가 지닌 강렬한 에너지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시각적으로 더욱 직관적이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패키지 전면에는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과감하게 적용해



- 1 핫식스 패키지 리뉴얼 제품.
- 2 당, 칼로리를 낮춘 에너지음료 '핫식스 글로우' 복숭아&살구, 사과&포멜로 2종.
- 3 고용량·고카페인 선호 소비자 위한 헤비급 라인업 '핫식스 더킹'.
- 4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핫식스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제품명을 캔 중앙에 굵직하게 배치함으로써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브랜드로서의 묵직한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

이번 리뉴얼 제품은 250ml, 355ml, 500ml 등 다양한 용량의 캔 형태로 출시되어 소비자의 음용 상황에 맞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 등 온·오프라인 전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문화 영역으로 넓히는 브랜드 경험

핫식스는 젊은 층의 핵심 문화 코드로 자리잡은 뮤직 페스티벌, e스포츠, 게임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EDM 축제인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대규모 오프라인 부스와 샘플링 이벤트를 진행, 현장을 찾은 수많은 청춘에게 음악과 에너지가 결합한 역동적인 브랜드 경험을 각인 시켰다.

이번 디자인 리뉴얼에 맞춰 마케팅의 화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 디자인 공개와 동시에 가장 뜨거운 불꽃을 켜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대적인 브랜드 캠페인에 돌입했다. 성수와 강남 등 서울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달간 대규모 옥외 광고를 운영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33개월 만에 우승' 김주형, 메이저 골프 '디오 폰' 출격
▲'무적함대' 스페인, 프랑스 2-0 완파...16년 만에 결승 진출 /사진 뉴스스

▲역대 미국 대통령 야구 사인볼 세트, 경매서 45억 원에 낙찰
▲손흥민, 월드컵 휴식 마치고 LAFC 복귀...MLS 후반기 준비

▲골프장경영협회 회원사 25곳 하계 휴장...102개사 정상 운영
▲세계태권도한마당에 61개국 4천261명 참가...8월 1일 개막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